

조선시대 종묘 오향대제용 제기(祭器)의 상호관계와 성격

정전 제상과 준소상 제기를 중심으로

구혜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연구원, 미술사 전공

human180@daum.net

I. 서론

II. 제상 진설용 제기의 구성과 관계

III. 준소상 진설용 제기의 구성과 관계

IV. 오향대제용 제기의 성격: 개별과 전체의 상호작용과 조화

V. 결론

I. 서론

조선시대 ‘종묘제기’는 선대 왕과 왕후의 신주(神主)를 모신 공간인 종묘의 제향에서 사용하는 제기 일습을 지칭하는 용어이다.¹ 종묘 제향에는 다양한 기종과 용도의 제기들이 사용되고,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기는 제상(祭床)과 준소상(樽所床)에 올리는 제물(祭物)과 제주(祭酒)를 담은 제기들이다. 이 외에 향(香)을 사르는 향기(香器), 빛을 밝히는 조명기(照明器), 제물을 준비할 때 사용하는 조리기(調理器), 손을 씻을 때 사용하는 관세기(盥洗器) 그리고 제사 절차 중 제물의 일부를 처리하는 기물들도 ‘종묘제기’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종묘에서 거행된 여러 제향 중, 가장 많은 기종과 개수의 제기를 사용하는 제향은 오향친제(五享親祭)로 사계절의 첫 달 상순(上旬)과 납일(臘日)에 왕이 종묘 정전으로 친히 나아가 지내는 제향이다.² 종묘 오향친제는 조선시대 국가제사 중 가장 크고 중요한 제사로 여겨져 대제(大祭)라고 불렸고 조선의 국가제사 중 가장 많은 제물과 제기가 진설되었다.³ 그리고 이때 제상과 준소상

-
- 1 이 글에서는 종묘 정전의 19개 신실 중 신주 2위를 모신 신실을 기본으로 삼아 종묘제기를 분석하겠다. 왜냐하면 종묘 정전 중 국왕과 왕비의 신주 2위를 모신 신실이 10개의 신실로 가장 많고, 국가전례서들에 실린 종묘 饌室尊罍圖들도 모두 신주 2위를 기준으로 한 제상차림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로 신주 2위를 모신 신실을 기본으로 논의하되 신주가 3위, 4위일 경우도 함께 고려하여 신주와 제기와의 상호관계를 함께 살펴보겠다.
 - 2 종묘 오향제는 일년에 다섯 번, 즉 四時祭인 1월의 孟春祭, 4월의 孟夏祭, 7월의 孟秋祭, 10월의 孟冬祭와 동지 뒤 셋째 未日에 臘日祭로 지냈다.
 - 3 조선시대 국가사전체제는 제사의 위계에 따라 大祀·中祀·小祀로 구분된다. 조선시대 내내 大祀에 대사에 편입된 종묘의 정전, 영녕전, 사직에서 大祭를 올렸다. 『國朝五禮儀』 吉禮 辨祀記; 한형주, 『朝鮮初期 國家祭禮 研究』(서울: 일조각, 2002), 9~13쪽. 조선 후기에는 종묘와 사직 외에 祈穀, 祈雨가 대사에 포함되었고 景慕宮, 大報壇에서도 일부 제향에 대제를 올렸다. 『春官通考』 吉禮序例; 『太常志』 〈宗廟大享陳設圖〉; 『太常志』 〈大報壇大享陳設圖〉; 『太常志』 〈景慕宮大享陳設圖〉. 조선 후기 대사로 편입된 제사의 종류와 요건에 대해서는 이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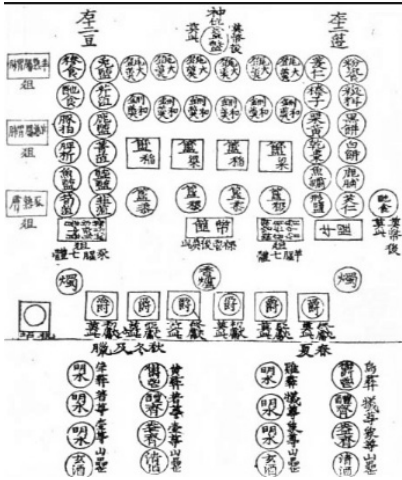


그림1-『국조오례의서례』 「길례서례」, 종묘사시급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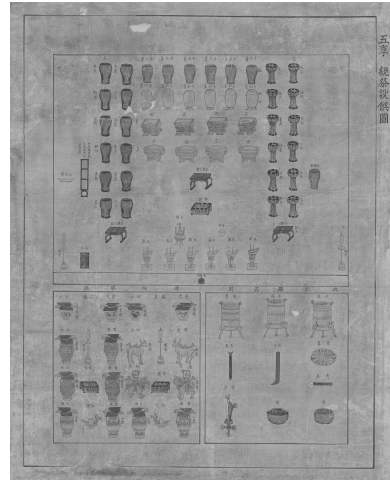


그림2-〈오향친제설찬도〉, 《종묘친제 규제도설병풍》 중 6폭(1866~1868년 제작, 국립고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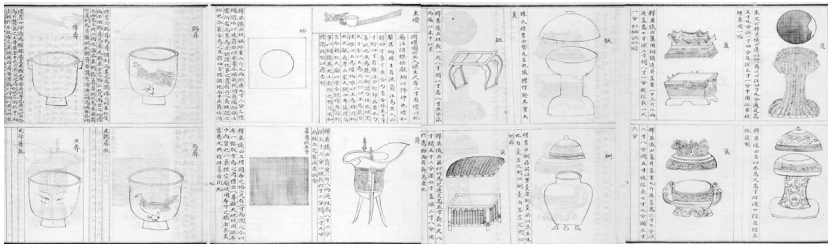


그림3-『세종실록오례의』 「길례서례」 제기도설

에 진설되는 제물과 제기는 유교식 제사인 정제(正祭)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여겨졌다(그림1, 그림2).⁴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서울: 일지사, 2008), 29쪽, 주 4를 참고.

4 일반적으로 조선의 국가제사는 正祭와 俗祭로 구분된다. 정제는 유교경전에 실린 유교식 제사로 반드시 제물로 犧牲을 올린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정제에서 모시는 제사의 대상이나 제사를 거행하는 주체의 高下에 따라 大祀·中祀·小祀로 위계 지어 구분했다. 이에 비해

이 연구는 종묘 오향대제에 사용된 제기를 대상으로 그 안에 내재된 속성들의 상호관계에 관한 내용을 다룬 글이다. 오향대제 시 왕과 비의 신주 2위를 모시는 신실의 안에 설치하는 제상과 밖에 설치하는 준소상에 다음과 같은 제기를 올린다. 우선 제상 위에 진설하는 제기로 변(甗) 12개, 두(豆) 12개, 등(甗) 6개, 형(鉶) 6개, 보(簠) 4개, 궤(簋) 4개, 조(俎) 3개, 생갑(牲匣), 작(爵) 6개, 폐비(幣篚) 1개, 축점(祝玷) 1개, 모혈반(毛血盤) 1개, 간료등(肝膋甗) 1개, 향로(香爐) 1개, 향합(香盒) 1개, 축대(燭臺) 2개가 있다. 또 준소상에 진설하는 봄·여름용 제기로 용찬(龍瓚), 계이(鷄彝) 1개, 조이(鳥彝) 1개, 상준(象尊) 2개, 희준(犧尊) 2개, 산뢰(山罍) 2개, 먹(幕), 용작(龍勺), 축대(燭臺)가 있고, 가을·겨울용 제기로 가이(犛彝) 1개, 황이(黃彝) 1개, 호준(壺尊) 2개, 착준(著尊) 2개, 산뢰(山罍) 2개, 먹, 용작, 축대가 있다. 이 외에 제수들을 준비하는 제기로 우정(牛鼎), 양정(羊鼎), 시정(豕鼎), 먹(幕), 경(局), 필(畢), 부(釜), 확(鑊), 난도(鑾刀)가 있고, 제향 참여자들이 손을 씻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기로 이(匱), 이반(匱盤), 세뢰(洗罍), 세(洗) 등이 있다.

또 현전하는 국가전례서 길례 찬실준뢰도설 중 가장 먼저 실린 도설이 종묘 오향대제의 진설 장면이라는 점, 국가전례서 제기도설(祭器圖說)에 실린 제기들도 대부분 종묘 오향대제에서 사용한 제기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종

속제는 유교경전에 실리지는 않았으나 관습이나 人情상 지내는 제사로 油蜜果 등의 일상 음식을 올리고 잔, 대접 등 일상 기종을 제기로 사용한다. 이옥, 「조선시대 왕실 제사와 제물의 상징: 혈식·소식·상식의 이념」, 『종교문화비평』 20(2011), 226~236쪽.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비록 같을지라도 제물과 제기의 중첩을 가능한 피하는 방식으로 제사의 변동함을 해결하려 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조선시대 종묘 오향대제용 제기를 통시적으로 파악하고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하는 문헌사료와 회화는 다음과 같다. 『世宗實錄』 五禮儀, 吉禮序例, 〈饌室圖〉, 〈宗廟祫享五室饌室圖〉; 祭器圖說; 『國朝五禮儀序例』 「吉禮序例」 宗廟四時及臘, 祭器圖說; 『國朝五禮通編』 「吉禮序例」; 『春官通考』 「吉禮序例」 原義宗廟四時及臘, 祭器圖說; 『宗廟儀軌』 宗廟五享大祭說饌圖說, 祭器圖說; 『太常志』 〈宗廟大享陳設圖〉; 《宗廟親祭規制圖說屏風》 第6幅 〈五享親祭設饌圖〉.

묘 오향대제용 제기가 조선시대 국가제사용 제기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그림3).⁵ 그뿐만 아니라 종묘제향 장면을 병풍 형식으로 제작한 제의 도병(祭儀圖屏)에도 오향친제 제기를 진설한 장면이 그려져 있어 종묘제향에서 종묘제기가 갖는 중요성이 확인된다(그림2).⁶

조선시대 동안 편찬된 국가전례서에 실린 종묘오향대제 찬실준뢰도(饌室尊罍圖) 및 제기도설들, 숙종 대 편찬된 『종묘의궤』 그리고 고종 대 제작된 《종묘 친제규제도설병풍》의 〈오향친제설찬도〉등을 서로 비교했을 때, 조선시대 전 시기 동안 종묘 오향대제의 제기와 진설 방식은 대체로 유지되었다(그림1, 그림2, 그림3). 조선시대 국가의례별 의례기들이 시기별로 크고 작은 변화를 거치는 것에 비해, 종묘 오향대제용 제기들의 종류와 진설 방식이 조선시대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된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다.⁷ 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국가전례서, 의궤, 도병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종묘 제기 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노력을 통해 가능했다고 여겨진다.

그동안 1960년대부터 종묘제기를 중점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다룬 개론

5 주석3에 열거한 국가전례서, 의궤, 도병을 참조할 것.

6 조선 초기부터 도병이 제작되었지만 제의도병의 시작은 1797년(정조21)에 제작된 《경모궁향의도병》으로 밝혀진 바 있다. 박정혜, 「종묘 제례를 그리고 기록해 후일의 지침으로 삼다」, 강제훈 외, 『종묘, 조선의 정신을 담다: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으로 본 종묘제례』(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14), 111~115쪽.

7 16세기 말 전쟁으로 인해 종묘제기가 산일되면서 민가의 그릇으로 종묘제사를 지내기도 했으나,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종묘제기를 마련했다. 『宣祖實錄』 34년(1601) 2월 28일; 『社稷宗廟文廟祭器都監儀軌』. 더불어 광해군 대부터 중국에서의 국내 유입과 영향으로 제기의 조형적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社稷宗廟文廟祭器都監儀軌』. 그리고 종묘제향의 의순도 시기별로 차이가 있고, 생갑, 모혈반, 촛대 등 일부 제기의 모양이나 진설 위치가 바뀌기도 한다. 한형주, 「영정조대 변화된 종묘제례가 표현되다」, 강제훈 외, 위의 책, 166~173쪽; 이육, 「조선후기 종묘 증축과 제향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61(2012). 이처럼 시기별로 종묘 오향대제에 변화가 발생했으나, 전체적 흐름상 종묘제기에서 보이는 변화는 일부이고 다른 의례기들과 비교했을 때 그 원형이 비교적 꾸준히 유지된 편이다.

서, 학술서, 보고서들이 꾸준히 출판되고 관련 전시도 개최되었다.⁸ 더불어 역사학과 미술사학과를 중심으로 현전 유물, 사료, 회화 기록을 기반으로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기존 학술 성과들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종묘제기의 구성과 진설 방식,⁹ 기종별 제기(변, 두, 이, 준, 퇴)의 사용 방식과 예서 분석,¹⁰ 금속 재질의 종묘제기나 도설 속 종묘제기의 조형 양식,¹¹

- 8 황경환, 『朝鮮王朝의 祭祀』(서울: 문화재관리국, 1967); 문화재관리국(편), 『宗廟祭器』(서울: 문화재관리국, 1976); 윤방언, 『朝鮮王朝 宗廟와 祭禮』(대전: 문화재청, 2002); 문화재청 종묘관리소(편), 『종묘』(서울: 문화재청 종묘관리소, 2006); 궁중유물전시관(편), 『宗廟大祭文物』(서울: 궁중유물전시관, 2004); 이현진, 앞의 책; 장경희, 『조선 왕실의 궁중 의물』(서울: 민속원, 2013), 295~419쪽; 강제훈 외, 『종묘, 조선의 정신을 담다』(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14); 국립고궁박물관(편), 『종묘』(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14); 이옥, 『조선 왕실의 제향 공간: 정제와 속제의 변용』(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94~101쪽.
- 9 조미경, 「朝鮮朝時代의 祭器에 關한 研究: 宗廟祭器를 中心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4); 최순권, 「宗廟祭器考」, 『宗廟大祭文物』(서울: 궁중유물전시관, 2004b); 이귀영, 「宗廟祭禮의 祭器와 祭需의 진설 원리」, 『미술사학』 27(2013); 손명희, 「종묘제향을 위한 그릇과 도구」, 국립고궁박물관(편), 앞의 책; 손명희, 「조선의 국가 제사를 위한 그릇과 도구」, 『조선의 국가의례, 오례』(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15).
- 10 최순권, 「조선시대 이준에 대한 고찰」, 『생활문화연구』 14(2004a); 박봉주, 「조선시대 국가 祭禮와 尊·罍의 사용」, 『조선시대사학보』 58(2011); 박봉주, 「조선시대 국가 祭禮와 簠·豆의 사용」, 『동방학지』 159(2012); 박수정, 「조선초기 儀禮제정과 犧尊·象尊의 역사적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0(2012); 구혜인, 「조선시대 국가 의례용 술잔의 表象: 爵」, 202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정기학술대회 발표회(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3).
- 11 김종임, 「朝鮮王室 金屬祭器 研究: 宗廟祭器를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장경희, 「종묘 소장 王室祭器의 銘文 분석: 제작연대와 사용처의 고증을 중심으로」, 『도시역사문화』 8, 2009; 김종임, 「조선왕실 금속제기 연구: 종묘제기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77(2013); 하은미, 「宗廟祭器와 朝鮮時代 祭器圖說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하은미, 「장서각 소장(陳設圖)와 조선후기 왕실 제례 정비」, 『미술사학』 30(2015); 곽현우, 「朝鮮時代 王室의 金屬祭器와 祭器圖說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5); 구혜인, 「조선시대 簠簋不飾의 함의와 祭器의 도철·거북문과의 관계」, 『한국학』 144(2016); 구혜인, 「조선시대 왕실 제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9).

종묘제기 제작 과정이나 장인(匠人),¹² 중국 태묘 제기와와의 비교,¹³ 종묘 신실 공간과 제기 진설의 상호관계,¹⁴ 종묘제기의 문양이 가진 사상적 의미 등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종묘제기와 관련한 많은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고 이해가 깊어졌다.¹⁵

이상의 성과들의 주된 연구 방향은 두 갈래로 나뉜다. 즉 오향대제에 사용된 다종다양한 제기들의 기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종묘 제기들의 전체적인 진설방식을 조망하는 연구와 기종별 제기들의 용도, 조형 양식, 중국 예서의 영향을 심화해 분석하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종묘제기를 주제로 다양한 접근과 분석이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선의 종묘제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지는 중국 제기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은 물론 타당하지만, 연구자는 조선의 종묘제기에 관한 연구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고 특히 ‘제기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조선의 종묘제기와 중국의 태묘제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밝히

12 장경희, 「조선후기 王室祭器 鑄成 鑄器匠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9(2006); 구혜인, 「조선후기 국장용 제기의 조성과정과 성격: 정조 국장 관련 의궤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42(2022); 이옥, 「부모를 통해 본 종묘 이해」, 『종교문화비평』 45(2024).

13 장경희, 「조선후기 종묘제기와 청대 태묘제기의 비교」, 『천년의 이야기』(서울: 문화재청 종묘관리소, 2010).

14 구혜인, 「조선후기 종묘 신실 공간의 구성방식과 성격」, 『한국학』 163(2021).

15 종묘제기의 조형적 변화에 집중해 분석했으므로 조선시대 종묘제기가 시기별로 큰 변화를 거쳤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종묘제기의 전반적인 구성과 핵심 요소들은 일부 경우(예: 희준, 상준, 조 등)를 제외하고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조선시대 일정 시기를 분절해 종묘제기를 살펴보고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 방식의 장점이 분명히 있으나 조선시대 종묘제기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속성에 대한 이해와 접근은 연구 대상 시기를 최대한 넓혀 통시적으로 접근했을 때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단 부분적으로 발생한 의미 있는 변화들을 함께 살펴본다면 조선시대에 사용된 종묘제기의 본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의 종묘제기가 갖고 있는 성격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조선시대 종묘 오향대제용 '제기의 상호관계와 성격'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우선 조선시대 종묘 오향대제에서 제상과 준소상에 진설하는 제기들의 용도, 재질, 크기, 문양, 의미, 진설 방식 중 서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추출해 분석하겠다. 다음으로 요소들끼리 연결하고 종합하여 제기들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겠다.¹⁶ 예를 들어, 각 제기들이 다른 제기들과 맺는 요소별 상호관계, 친연(親緣)한 요소를 공유한 제기들의 조합이 진설 모습에 주는 양상 그리고 신주의 변화가 제기에 미치는 영향 등 각종 요소와 변수들에 의해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원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¹⁷ 이를 통해 조선시대 종묘 오향대제용 제기들이 서로 구별되는 뚜렷한 속성을 갖추면서 동시에 서로 긴밀하게 상응하여 종합적 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을 추출하고자 한다. 더불어 조선시대 오향대제에 진설되는 제기들이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변화하는데도

16 이 연구에서 주로 논할 종묘제기들은 제상과 준소상에서 제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된 제기이다. 본래 종묘제향에 사용하는 모든 제기를 포괄해야 하나, 종묘제기들 중 내·외부적인 조건과 변수에 민감하게 상호반응하는 제기들이 제상과 준소상에 올린 제기들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초점이 종묘제기들간의 '상호관계'인만큼 상호관계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제기들을 위주로 논하겠다.

17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다룬 중국과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겠다. 물론 중국의 제기나 예서의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종묘제기들의 '상호관계'에 집중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살피기 이전에 내부의 성격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제기와 비교하는 데 논점을 맞추다 보면, 조선시대 종묘제기가 중국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수동적인 결과물이라고 여겨지는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선의 종묘제기는 중국의 제기와 예서의 영향을 받았지만 종묘제상의 최종적인 진설 모습은 양국 간 큰 차이가 있다. 지면의 한계상 중국 제기와 비교 연구는 추후를 기약하겠다.

불구하고, 제상과 준소상에 진설된 전체 모습이 어떻게 조화롭고 정갈하게 연출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제상 진설용 제기의 구성과 관계

오향대제의 제상(祭床)에는 각종 곡식, 찬(饌), 갱(羹), 희생(犧牲), 술로 구성된 제물과 더불어 폐백(幣帛), 향(香) 등이 진설되었다(그림4). 이를 담는 제기로 변, 두, 보, 궤, 등, 형, 조, 작, 모혈반, 폐비, 향로 등이 있었다. 각각의 제물은 그 성격과 부합되는 형태와 장식을 갖춘 제기에 담겨 진설되었고, 제물이 제기에 담기지 않은 채 진설되거나 제기를 서로 뒤바뀌 진설하는 경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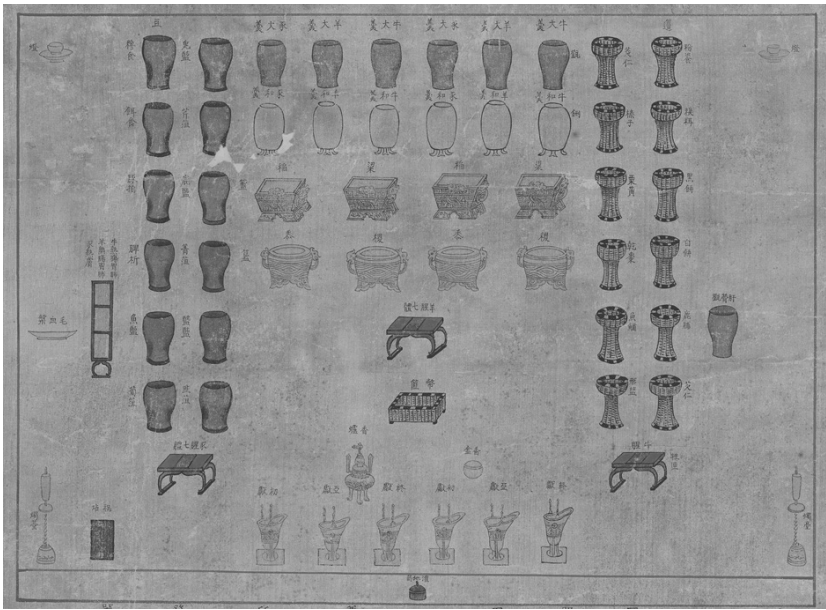


그림4-〈오향친제설찬도〉중 제상 부분,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중 6쪽 (1866~1868년 제작, 국립고궁박물관)

없었다. 그러므로 제물뿐만 아니라 제기도 종묘 제향을 이해하는 중요한 물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조선시대 길례 중 규모가 가장 컸던 종묘 오향대제의 제상에 오른 제기들의 재질, 형태, 문양 등 조형적 요소들끼리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를 바탕으로 제상에 진설된 제기들의 구성과 진설 방식을 제물, 진설 위치, 진설 개수, 신주 수와의 관계 등의 주변 요소들과 연결해 고찰하겠다.

1. 변과 두

변과 두는 제의에 차려진 모든 제기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될 만큼 제사에서 기본 역할을 하는 기물이다.¹⁸ 조선시대 국가전례서의 제기도설에서도 변과 두를 맨 앞에 실었고, 찬실준뢰도에서도 변과 두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했다.¹⁹

변과 두의 재질은 제물의 난 위치와 함유된 수분량 관계를 갖고 있다. 각 신실의 제상마다 변 12개와 두 12개를 합해 총 24개에 이르는 많은 수의

18 제사에서 籩·豆는 제의에 차려진 모든 제기를 의미하는 대표 명사로 사용되기도 했다. 『中宗實錄』 7년(1512) 12월 20일; 『正祖實錄』 2년(1778) 5월 2일 외 다수. 또 제사를 마치는 것을 '변과 두를 치운다.'라는 뜻의 '撤籩豆'라고 표현했다. 철변두는 제기를 거둔다는 의미이지만 실제로 제사상 위의 제기를 모두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과 두를 하나씩만 약간 옆으로 옮기는 것[撤者 籩豆各一 少移於故處]을 의미한다. 『景慕宮儀軌』 권2 祀典 五享親祭儀 撤籩豆; 『端宗實錄』 2년(1454) 7월 16일.

19 『世宗實錄五禮儀』 「吉禮序例」 祭器圖說 籩豆; 『國朝五禮儀序例』 「吉禮序例」 祭器圖說 籩豆; 『國朝五禮通編』 「吉禮序例」 祭器圖說 籩豆; 『春官通考』 「吉禮序例」 祭器圖說 籩豆. 조선시대에 편찬된 국가전례서의 제기도설의 '圖' 부분은 일부시기에 변화가 있지만 '說'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 지면의 분량을 고려하여 앞으로 논의할 제기의 각 기종의 '설' 부분은 위 국가전례서들의 해당 부분에서 참고한 것이므로 최초 기록인 『世宗實錄五禮儀』 「吉禮序例」 祭器圖說을 제외한 국가전례서 각주들은 생략하고자 한다. 만약 특정 시기 일부 국가전례서에서 변화가 발생하면 이는 별도로 언급하겠다.

변·두를 올리는 것은 육산(陸産)과 수산(水産)이 서로 조화되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²⁰ 또 변은 대나무를 잘게 쪼개 가로와 세로로 엮어 만들어 마른 음식을 담는 용도로 쓰이고, 두는 나무를 깎은 후 방수성이 있는 옷칠을 하여 물기 있는 음식을 담는 데 쓰였다(그림5, 그림6, 그림7).²¹ 구체적으로 오향대제에서 변에는 생과실과 마른 제수인 말린 대추[乾棗]·소금[形鹽]·말린 생선[魚鱸]·흰 떡[白餅]·사슴 육포[鹿脯]·개암 열매[榛子]·수수떡[黑餅]·마름열매[菱仁]·연꽃 씨[芡仁]·마른 밤[栗黃]·콩고물 문힌 경단[糰飩]·콩고물 문힌 찹쌀떡[粉糰]을 담고, 두에는 물기가 있는 젖은 제수인 미나리김치[芹菹]·죽순김치[筍菹]·소의 천엽[脾析]·열무김치[菁菹]·부추김치[韭菹]·물고기의 젓[魚醢]·돼지갈비[豚拍]·사슴고기의 젓[鹿醢]·토끼고기의 젓[醢醢]·고기국물 육장[醢醢]·경단[醢食]·쌀가루와 고기 등을 섞어 반죽해 기름에 지진 떡[糝食]을 담았다.²² 그리고 변·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제작했고 이는 자연의 질박(質朴)한 성질을 숭상하는 유교주의적인 인식과도 관련 있다.²³

20 『禮記注疏』 권25 「郊特牲」; 박봉주, 앞의 논문(2012), 182쪽 재인용. 변과 두에 담기는 제물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맛있는 음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이옥, 앞의 책(2015), 99쪽.

21 『三禮圖』, “豆宜濡物 籩宜乾物故也”. 중국에서 성립된 변과 두의 제도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는 박봉주, 앞의 논문(2012), 180~202쪽을 참조.

22 이미 중국 周代에 변을 담당하는 籩人和 두를 담당하는 蟹人이 준비할 음식을 구분했다. 『周禮』天官冢宰 籩人; 『周禮』天官冢宰 蟹人. 조선시대 국가의례서에 중국 예서의 내용을 따라 각각의 제기에 담은 제물의 종류가 정해졌다. 그러나 고대에 기록된 제물의 종류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중국과 조선의 물산이 다르고, 생산 시기나 형편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의 상황에 맞추어 유사한 재료로 대체되기도 했다. 『仁祖實錄』 16년(1638) 5월 7일; 『肅宗實錄』 43년(1717) 6월 21일 기사 등 다수. 이에 비해 제기는 제물만큼 환경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의례서에 기록된 바에 최대한 충실하게 제작되고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23 대오리를 엮어 만든 변을 竹籩이라 부르고 나무를 깎아 옷칠한 두를 木豆라고도 불렀다. 『承政院日記』 高宗 11년(1874) 5월 2일 등 다수. 초목이나 도기란 재질은 금속에 비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유교식 제사에서 숭상하는 가치인 검박함을 상징했다.

변과 두의 진설은 본래 한 쌍을 이루어, 오향대제 시 제상의 가장 바깥 좌측과 우측에 각각 12개씩 대칭구조로 진설된다. 즉 제상의 왼편에 변을 12개 놓고 제상의 오른편에 같은 개수의 두를 놓아 총 24개의 변과 두를 나란히 배치했다(그림4).²⁴ 땅과 물의 산물을 변과 두에 끌고루 담은 모습은 후손이 차린 풍성하고 정성스러운 제사상의 모습을 연출하는 데 일조했다. 문헌에서는 예법에 맞게 잘 차려진 제사상의 모습을 읊을 때 자주 등장하는 문구인 “변·두가 정갈하고 아름답게 놓여 있다[籩豆靜嘉].”는 제상에 놓인 변·두의 시각적인 효과를 잘 드러내는 표현으로, 변과 두처럼 동일한 크기와 높이의 제기들을 좌우로 배치하여 제상의 풍요로움과 정갈함을 효과적으로 연출했다고 여겨진다.²⁵

변과 두의 개수는 제사의 위계와 성격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선 시대 국가 사전에 등재된 정제의 제기체제는 대사(大祀)인 종묘 오향대제의 변·두 12개를 정점(頂點)으로 하여 중사(中祀)와 소사(小祀)로 내려갈수록 12-10-8-4-2-1의 순으로 줄어든다(표1).²⁶ 조선 전기부터 말기까지 12개씩 변과 두를 진설하는 국가제사는 사직(春秋祭), 종묘(五享大祭), 영녕전(春秋祭)이고 조선 후기에는 기곡(祈穀), 기우(祈雨), 경모궁(景慕宮), 대보단(大報壇)도 일정 조건이 맞으면 대사로 거행되었고, 이때는 오향대제와 마찬가지로 변과 두를 12개씩 진설했다.²⁷

24 『禮記』「郊特牲」에서 “정과 조는 홀수[奇數]로 하고, 변과 두는 짝수[偶數]로 하는데, 이것은陰陽을 구별하는 뜻이다.”라고 하여 변과 두를 짝수로 놓는 원리를 설명했다.

25 『詩經』「大雅」生民之什 既醉.

26 『世宗實錄五禮儀』「吉禮序例」; 『國朝五禮儀序例』「吉禮序例」.

27 국가 제향마다의 진설된 제물과 제기의 종류와 진설 방식은 제향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제향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보다 심화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소재가 된다.

더불어 12변과 12두를 진설하는 제사들도 제사의 종류에 따라 변·두의 배열이 서로 달랐다. 예를 들어, 종묘와 영녕전의 오향제에서 변두를 각각 2열 6행으로 진설했으나 사직과 대보단의 오향제에서는 변두를 3열4행으로 진설했다. 제사에 따라 변두의 배열이 다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문헌은 아직 확인되지 않으나, 추정컨대 종묘와 영녕전의 경우 각 신실별 신주의 수가 최소 2위 이상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즉 종묘와 영녕전에서는 신실별로 하나의 제상마다 신주 2위 이상을 모시므로 변과 두 사이에 보, 궤, 등, 형이 가로 방향으로 길게 진설되어 필연적으로 제상의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하지만 사직과 대보단에서는 제상별로 1위의 신주만을 모시므로, 변과 두 사이에 보, 궤, 등, 형을 진설하는 규모가 최소 2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따라서 사직과 대보단의 제상 공간이 종묘보다 더 여유로워져 변·두를 2열이 아닌 3열씩 진설할 수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처럼 신주의 개수는 제기의 진설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제상의 모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변과 두의 전체적인 모양과 크기도 역시 제기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변과 두의 전체적인 모양과 크기는 서로 동일하다. 조선시대 국가전례서에 명시된 변과 두의 조형적 제도를 살펴보면, 변과 두는 같은 크기(너비 4치 9푼, 총높이 5치 9푼, 깊이 1치 4푼, 바닥지름 5치 1푼)로 제작되었다.²⁸ 변과 두를 동일한 크기로 제작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갈한 제수 진설을 위해서 ‘조화와 균형’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높이와 너비로 제작된 변과 두를 제상의 좌우로 12개씩 늘어놓으면 다양한 제물의 풍성함과 정갈한 진설 장면을 동시에 연출해 제향의 극진함을 효과적으로

28 『世宗實錄五禮儀』 「吉禮序例」 祭器圖說 簋 豆. 조선시대 변과 두의 제도를 정하면서 영향을 받은 중국 문헌은 『紹熙州縣釋奠儀圖』, 『禮記』, 『三禮圖』, 『周禮』이다.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²⁹ 만약 모두 24개에 달하는 변과 두를 제각각 다른 크기와 모양으로 제작해 제상에 늘어놓는다면 비록 풍성하게 보일지라도 정갈하고 체계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모습은 제향의 정성이 부족해 보이거나 자칫 불경(不敬)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특히 변과 두에 담은 24가지의 제물은 재료, 형태, 색이 모두 다르므로 제기의 형태와 크기를 통일하는 방식을 통해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으로 살펴보았을 때 오향대제용 변과 두는 각각 육산과 해산을 모두 담은 제기로서 서로 한 쌍을 이룬다. 국가제사에 진설되는 변과 두의 개수는 제사의 등급과 성격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오향대제에는 제상의 양쪽에 변과 두를 12개씩 진설해 가장 높은 등급의 제사라는 사실을 표시했다.³⁰ 오향대제에 진설되는 다른 제기들은 변과 두처럼 많은 개수가 진설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와 규모를 통해 제사의 위계를 드러내기 어려운 기종인 반면, 최대 12개까지 진설할 수 있는 변과 두는 수의 증가와 차감을 통해 제사의 위계와 성격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또 오향대제에서 변과 두를 12개씩 제상의 양쪽에 진설한 모습을 통해 갖가지 제기와 제물을 올리는 제

29 변과 두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게 되면 다시 제작하여 그 크기를 같게 맞추었다. 『英祖實錄』 39년(1763) 9월 6일, 제기뿐만 아니라 제수의 형태가 들쭉날쭉하고 가지런하지 않은 것[或不潔參差之弊]은 조상에 대한 공경함이 부족한 것으로 보았다. 『日省錄』 正祖 10년(1786) 3월 20일.

30 한 예로 경모궁 제향은 성격상 속제에 해당하지만, 정조가 사친을 추송하기 위해 정제의 중사로 편입시켰고 친제시에는 대사로 거행했다. 비록 경모궁 제향을 대사의 예로 거행할지라도 종묘와 완전히 동일한 급이 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제향에 올릴 변과 두를 종묘보다 2개씩 줄여 각각 10개씩 진설해 오향대제보다 제향 규모를 약간 축소했다. 변과 두의 개수를 줄여 제사의 등급을 조절하려는 방식은 정조가 경모궁 제향을 “(종묘)대제보다는 못하게, 속절보다는 낮게” 하라고 하면서, “준퇴의 가짓수와 佾舞의 배열은 종묘보다 한 등급 낮게 정하겠다.”는 언급에 잘 드러난다. 『正祖實錄』 13년(1789) 1월 20일. 이처럼 변·두의 개수는 제사의 위계구조(대사·중사·소사)를 결정하는 기준이자 섬세한 도구로서 활용되었다.



그림5-변(높이 19.5cm, 조선 후기, 국립고궁박물관) 그림6-두(전체 높이28.3cm, 조선 후기, 국립고궁박물관) 그림7-두(전체 높이27.8cm, 조선 후기, 국립고궁박물관)

표1-조선시대 제사별 변·두의 수량과 제수의 종류

제기	수량	변과 두에 담는 제수의 종류												총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변	12	乾棗 건조	形鹽 형염	魚鱸 어수	白餅 백병	鹿脯 녹포	榛子 진자	黑餅 흑병	菱仁 능인	芡仁 검인	栗黃 울황	糗餌 구이	粉飡 분자	24
두	12	芹菹 근저	筍菹 순저	脾析 비석	菁菹 청저	韭菹 구저	兔醢 토해	魚醢 어해	豚拍 돈박	鹿醢 녹해	醢醢 담해	醢食 이식	糝食 삼식	
변	10	건조	형염	어수	백병	녹포	진자	흑병	능인	검인	울황			20
두	10	근저	순저	비석	청저	구저	토해	어해	돈박	녹해	담해			
변	8	건조	형염	어수		녹포	진자		능인	검인	울황			16
두	8	근저	순저		청저	구저	토해	어해		녹해	담해			
변	4	건조	형염			녹포					울황			8
두	4	근저			청저			어해		녹해				
변	2					녹포					울황			4
두	2				청저					녹해				
변	1					녹포								2
두	1									녹해				

* 『국조오례의』 「갈례서례」 〈찬실준회도〉에 기록된 제사별 변과 두의 제물을 종합하여 표로 작성함.

상의 전체적인 모습이 균형 있게 보이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더불어 변과 두는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하지만 동일한 크기와 형태로 제작하여 제사의 정갈한 모습을 연출하는 데 일조했다. 마지막으로 변과 두를 가장 평범한 소재인 대오리와 나무로 제작한다는 점에서 다른 제기들과 비교해 질박한 속성을 갖은 제기로 인식되었고, 자연의 검박함을 존중하는 유교적 가치는 변과 두에 투영되어 오향대제를 대표하는 제기로 인식되었다.

2. 보와 궤

보와 궤는 곡물을 담은 제기로, 보에는 쌀[稻]과 수수[粱]을 담고 궤에는 기장[黍]과 조[稷]을 담는다. 『역경』에서는 “막중한 제향에는 보·궤가 우선이 된다”고 했고, 실제 거의 모든 정제에 보와 궤가 진설되었다.³¹

종묘의 보·궤는 변·두처럼 서로 한 쌍이 되어 제상 중앙에 나란히 진설되었다(그림4). 보와 궤의 특징은 신주의 수에 따라 보궤의 수가 달라진다는 점이다.³² 종묘제향에서 신주 1위마다 보·궤를 각각 2개씩 총 4개를 놓으므로, 만약 신실에 왕과 비(妃)의 신주 2위를 모실 때는 보 4개와 궤 4개를 합쳐 총 8개를 진설한다. 그리고 왕에게 정비(正妃) 외에 계비(繼妃)가 계실 경우, 보 2개와 궤 2개를 추가로 진설한다. 예를 들어, 숙종의 신실에는 왕, 정비 외 계비가 두 분 더 계셨으므로 총 네 분의 신주가 모셔졌다. 이에 보와 궤가 각각 8개씩 총 16개가 진설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앞서 살펴본 변과 두가 신주의

31 『國朝五禮儀』 「吉禮序例」 饌室尊疊圖說, “社稷正位 社稷正配位祈告 州縣社稷 宗廟四時及臘七祀 風雲雷雨 北郊望祈嶽·海·瀆·山·川 親享先農及配位 釋奠從享 酌獻文宣王 文宣王朔望 州縣釋奠正配位 靈星 祭 厲祭城隍, 厲祭無祀鬼神, 州縣醺祭”.

32 보와 궤처럼 종묘 오향대제에서 신주의 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제기의 종류로 등, 형, 작이 있다. 이 제기들과 신주 수의 비례관계에 대해 다룬 선행 연구로 다음을 참조할 것. 이육, 앞의 책(2015), 97쪽; 구혜인, 앞의 논문(2019), 89~91쪽.

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개수로 진설되는 원리와 다른 방식이다. 신주의 수에 따라 보·궤의 수가 함께 증가하는 이유는, 보와 궤가 제물 중 곡식을 담은 반기(飯器)이므로 조상신 각 분마다 진지를 따로 드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추정된다.³³

더불어 제기 개수의 증가는 진설 공간의 문제와 연동된다. 여러 신주를 모시는 신실이라고 해서 신실의 면적이 커지는 것이 아니며 대동소이하다. 현전하는 보와 궤의 가로 길이는 대체로 30cm 내외로 비교적 긴 편이다. 제상 위에 제기들을 서로 붙이다시피 진설한다고 하더라도 신주수가 늘어나면 제기를 놓을 수 있는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진다. 기존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제기진설 공간의 부족은 제상의 면적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해결되기도 했다.³⁴ 즉, 종묘 정전 신실에 배치된 제상 한 개의 너비가 보통 130cm대인데 비해, 네 분의 신주를 모신 중종실(6실)과 숙종실(11실)의 제상 너비는 220cm 내외로 두세 분의 신주를 모신 신실의 제상 너비에 비해 약 90cm 길게 제작되었다.³⁵

33 이 같은 이유로 하나의 제상에 신주 1위를 모신 사직·대보단·경모궁의 대사의 경우 보 2개와 궤 2개를 올렸다. 한편 종묘 제향에서 신주 1위마다 보와 궤를 항상 2개씩 올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宗廟俗節朔望祭, 永寧殿俗節朔望祭에는 신주 1위마다 보와 궤를 각각 1개씩 진설하고 신주가 1위씩 늘어날 때도 2개가 아닌 1개씩만 늘렸다. 『國朝五禮儀』「吉禮序例」饌室尊罍圖說 宗廟俗節朔望祭; 永寧殿俗節朔望祭.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정조의 친부인 莊獻世子를 위한 신주 1위를 모신 사당인 경모궁 대제시 보와 궤를 종묘처럼 각각 2개씩 진설하지만, 속절삭망제 시에는 보와 궤를 1개씩만 진설했다. 『景慕宮儀軌』設饌圖說; 俗節朔望設饌圖說. 이를 통해 보와 궤가 신주의 수에 비례하는 제기인 것은 맞지만, 제향의 성격과 위계에 따라 2의 배수 또는 1의 배수로 변화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34 기존 연구에서 종묘 정전 신주별 목가구인 제상, 준소상의 크기에 대해 수치를 분석한 바 있다. 구혜인, 앞의 논문(2021), 176~182쪽.

35 신주 4위가 모셔진 중종실과 숙종실의 경우 제상뿐만 아니라 신주장의 너비와 높이도 길었다. 이에 비해 준소상의 제기는 신주수와 무관하여, 모든 신실의 준소상의 너비는 거의 유사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일견 종묘 신실의 제상들이 모두 동일한 상차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종묘 각 신실의 제상들은 신주의 수에 따라 다른 규모로 차려진 것을 알 수 있다(그림41). 왜 신주의 수에 따라 제기의 개수를 달리하고 제상의 너비를 조정하면서까지 제상을 다른 규모로 조성하는 것일까? 이는 종묘에 모셔진 조상신 한 분씩 반기, 갹기, 술잔을 각각 드러 개별적인 식사를 즐기시도록 한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표면적으로는 종묘의 제상 모습이 도식적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상신 한 분마다의 상차림을 일일이 고려하고 공간 배치를 계산해 제기를 진설하므로 종묘 제상의 형식과 의미가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보와 궤가 내포한 또 다른 속성은 서로 반대의 형태를 갖추었다는 점이다. 중국 고대 예서인 『주례』에서는 네모난 것은 ‘보’이고 둥근 것은 ‘궤’라고 설명했다. 즉, 보는 ‘땅은 네모지다[地方].’라는 뜻을 담아 각지게 만들고 궤는 ‘하늘은 둥글다[天圓].’는 뜻을 담아 둥글게 만들었다.³⁶ 실제 현전하는 보는 대부분 안팎이 모두 방형이고 궤는 안팎이 모두 원형이다(그림8, 그림9, 그림10). 중국 고대 철학에 바탕을 두고 서로 다른 형태의 두 제기가 원(하늘)과 방(땅)으로 서로 호응하여 형식과 의미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은 보와 궤의 큰 특징이다.

더불어 보와 궤는 문양 장식이 중요한 제기이다. 동체 그리고 같은 모양의 뚜껑을 갖춘 보와 궤의 표면에는 다양한 무늬들이 장식되어 있다. 보의 기면

36 이와 비교하여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보와 궤도 있다. 『詩經』에 “內方外圓의 기물을 ‘궤’라고 하니 찰기장과 메기장을 담고, 外方內圓의 기물을 ‘보’라고 하니 쌀과 조를 담는다.”고 했다. 송대 진양수의 『三禮圖』에는 外方內圓의 형태로 그려진 보와 外圓內方的 형태로 그려진 궤가 실렸고, 실제로 고려시대 용인 서리 유적에서 『삼례도』의 전형적인 형식을 갖춘 백자 보와 궤가 출토된 바 있다. 이이 비해 조선시대의 보와 궤는 『소희주현석전지도』의 영향을 받아 안과 밖의 모양이 모두 같다. 이를 통해 시대별로 참고한 중국 예서에 따라 종묘제기의 형태가 변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에는 곡선문과 수면문(獸面文)이 조밀하게 채워져 있고, 궤의 기면에도 각종 기하학문이 장식되어 있다. 조선시대 국가전례서에는 보와 궤에 장식된 문양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그 의미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용어가 있다. 즉 중국과 조선의 문헌에서 보이는 보궤불식(簠簋不飾)이라는 문구로 글자 그대로 ‘보궤에 장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는 전근대 사회에서 청렴하지 못한 관리를 에둘러서 비난할 때 ‘보궤불식’이라는 문구를 사용했고, 이때 보궤에 장식해야 할 문양의 종류는 ‘도철문(饗饗文)’이었다고 해석한 바 있다.³⁷ 잘 알려진 대로 도철은 끝없이 음식에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자신의 몸까지 먹는 탐욕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로, 그릇에 장식된 도철문 장식은 탐욕, 탐식을 경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³⁸ 오향대제용 제기 중에서도 특별히 보와 궤에 도철문을 장식한 것은 음식의 근본인 곡식을 담았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이를 통해 제기의 문양과 제물이 서로 밀접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정리하면, 보와 궤는 서로 반대 모양인 제기가 짝을 이룬다는 형태상 특징이 있고 이는 각각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변·두와 달리 보·궤는 신위의 수에 따라 진설하는 개수가 변화하고, 이는 마치 조상신 한 분마다 각각 곡물을 담은 반기를 올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석된다. 더불어 가로 길이가 비교적 넓은 보와 궤가 신주의 수에 따라 2의 배수씩 늘어나고, 이러한 변화는 제상의 면적에 영향을 주었으며, 결국 각 신실별 제사상의 진설 규모에 차이를 불러왔다. 이를 통해 종묘의 신실의 제상 진설이 동일하고 단순하게 반복되는 방식이 아니라, 신주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하고 상황에 맞게 변화하면서 동시에 전체적인 조화까지 고려한 복합적인 의례 행위

37 구혜인, 앞의 논문(2016), 95~104쪽. 보와 궤에 장식된 다양한 무늬 가운데 털이 사방으로 날리는 얼굴이 장식된 경우가 있는데 도철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38 『呂氏春秋』「先識覽」, “周鼎著饗饗 有首無身 食人未咽 害及其身 以言報更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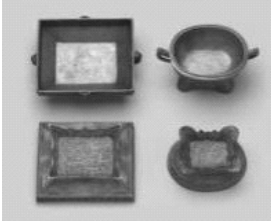


그림8-보와 궤 (각 높이 28.2cm, 높이 26.6cm, 조선 후기, 국립고궁박물관)



그림9-보 (22.8×30.0×20.8cm, 조선 후기, 국립고궁박물관)



그림10-궤 (15.2×30×20.5cm, 조선 후기, 국립고궁박물관)

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조선 초기 이러한 운영 원칙을 세운 이후 조선시대 내내 변함없이 지켜 나간 점도 종묘 제기의 고유한 성격이다. 더 붙여 보와 궤는 유달리 많은 문양으로 장식된 제기로, 그중 탐식을 경계하라는 의미가 있는 도철문이 장식되었다. 이는 변, 두가 최대한 장식을 절제해 제기의 질박함을 상징하고자 한 방식과 대조된다.

3. 등과 형

등과 형은 소고깃국[牛羹]·양고깃국[羊羹]·돼지고깃국[豕羹]을 담는 제기이다. 갱(羹)에 오미(五味)와 양념을 첨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제기를 구분해 사용했다. 즉, 등에는 오미와 양념을 섞지 않은 대갱(大羹)을 담고, 형에는 오미를 타고 맛을 내는 채소[菹]를 첨가한 화갱(和羹)을 담는다.³⁹

등과 형도 보·궤와 마찬가지로 신주의 수에 영향을 받는다. 오향대제에서 신주 1좌(座)당 등과 형을 진설하는 개수는 각각 3개씩이므로, 등과 형을 합해 신주 1좌당 총 6개를 진설한다. 그러므로 종묘의 한 신실에 신주가 2위

39 주석 3에 제시한 국가전례서와 『宗廟儀軌』 祭器圖說의 甄, 鉶 부분 참조.

일 경우 등과 형을 각각 6개씩 2줄을 진설하고, 신주가 3위일 경우 등과 형을 각각 9개씩 2줄을 놓으며, 신주가 4위일 경우 등과 형을 각각 12개씩 2줄을 놓는다. 그러므로 신주가 2위, 3위, 4위로 늘어나면 등과 형을 합친 개수는 12개, 18개, 24개의 순으로 점점 많아진다. 따라서 등과 형도 보·괘와 마찬가지로 제상의 너비를 길게 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각 신실의 제상마다 조금씩 다른 구성을 보인 것은 조상신들께서 ‘각각’ 동시에 ‘함께’ 음식을 즐기시도록 제상을 차린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조상신 한 분마다 밥, 국, 술잔은 따로 받으실 수 있도록 별도의 제기에 각자 차려드리고, 각종 찬류와 희생은 함께 나누어 드실 수 있도록 하나의 제기에 모아 차려 드린 것이다.

이와 더불어 등과 형의 진설 여부에 따라 제사의 종류와 위계를 파악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제에 변, 두, 보, 괘를 올리는 것과 다르게, 등과 형을 진설하는 제사는 드물기 때문이다. 조선 전기 『국조오례의』를 살펴보면, 종묘 오향대제를 비롯해 사직, 선농, 문선왕 등 일부 제사에만 등과 형을 진설했기 때문이다.⁴⁰ 이처럼 제기의 개수 변화를 통해 제상의 의미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다.

등의 크기와 모양은 보, 괘, 변, 두와 달리 국가전례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대신 등의 재질이 거론되는데, 즉 흙으로 제작한 등(登, 甗, 瓦豆)과 금속으로 제작한 등(鑑)이 언급되었다.⁴¹ 그중 조선시대 내내 사용된 것은 흙으로 제작한 등으로 문헌기록에서는 ‘와등(瓦甗)’이라는 용어로 등장하고 <오향친제규 제친설도>에서는 신주 바로 앞에 진한 고동색 기물로 그려져 있다(그림4, 그

40 『國朝五禮儀』 「吉禮序例」 社稷正位; 親享先農及配位; 親享文宣王及配位. 대사인 종묘대제와 사직대제 외에 中祀인 선농제와 문선왕제향에도 등과 형을 진설하는 것은 先農氏와 文宣王이 人神이면서 중사에서 중요한 제사로 여겼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41 『世宗實錄五禮儀』 「吉禮序例」 祭器圖說 登 “陳氏『禮書』云 登 瓦豆也”; 『儀禮』 作鑑, “其實大羹”.

림11). 종묘제향에 진설된 등은 주변에 구하기 쉬운 소박한 재료인 흙으로 제작되고 문양장식이 절제되었다(그림12). 등의 재질과 장식의 소박함은 간을 하지 않고 채소도 첨가하지 않은 대갱이라는 제물과 서로 호응한다.⁴²

종묘 오향대제 시 도기(陶器) 재질의 등을 진설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문헌 사료에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정조 대 기록에 오향대제에 사용하는 와등의 수가 종묘는 125개이고 영녕전은 87개에 이르렀다고 했다.⁴³ 또 영조 대 종묘제향을 위한 와등이 파손되는 문제점이 자주 발생하자 호조판서 박문수(朴文秀)가 와등을 두껍고 정밀하게 만들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⁴⁴ 이후 고종 즉위 이후 또는 늦어도 대한제국기부터 도기 재질의 와등을 합금동 재질의 유등으로 제작해 종묘제향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림13).⁴⁵

다음으로 형은 중국 고대에 국을 끓이는 예기로 사용된 정(鼎)에서 분화한 것으로 형정(銅鼎)이라고도 했다. 조선시대 편찬된 전례서의 제기도설에서 형은 대체로 입호 형태의 기형에 저부에 세 개의 다리가 달린 모습이고 손잡

42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제물은 조선의 산물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지만, 때로는 기강이 정비되지 않아 국가전례서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예를 들어, 대갱은 고기국이었으나 냉수에 소 비계를 조금 썰어 넣기도 했다. 이러한 변례를 확인하면 失禮라고 하여 예법에 의거하여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했다. 『國朝寶鑑』 권55 肅宗朝 15년 4월.

43 『日省錄』 正祖 19년(1795) 9월 12일.

44 『日省錄』 正祖 16년(1792) 11월 22일; 『承政院日記』 英祖 25년(1749) 9월 19일. 와등이 자주 파손되었던 이유는 도기가 자기에 비해 낮은 온도로 구워져 경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시유를 하지 않은 도기에 국을 담아 조직에 물이 스며들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와등은 거의 깨져 현전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금속으로 제작한 유등이 다수 남아 있어 최근까지 와등의 존재가 분명하게 인지되지 못했다.

45 대한제국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祭器圖〉(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속 등의 모습은 각이 진 접시 모양에 긴 기둥과 넓은 받침을 갖춘 형태로 기존 와등의 형태와 다르고, 색도 고동색이 아닌 노란 안료로 색칠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재질도 유기재질로 바뀐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등의 재질과 형태가 바뀐 뚜렷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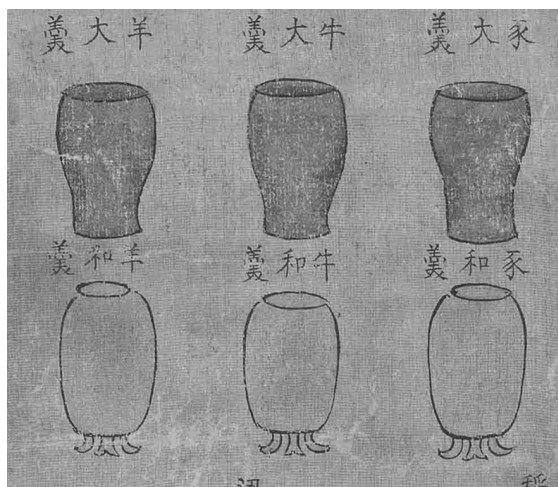


그림11-〈오향친제설찬도〉 중 등과 형 부분,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 중 6폭
(1866~1868년 제작, 국립고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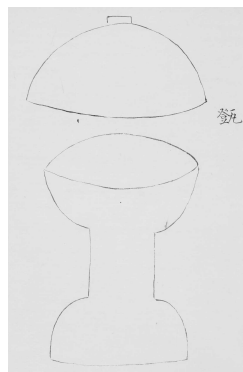


그림12-『세종실록』 「오례」
길례서례 제기도설의 등



그림13-등
(높이 13.5cm, 국립고궁박물관)



그림14-동체에 도철문이 장식된 형
(높이 21cm, 국립고궁박물관)

이는 부착되지 않은 형태로 실렸다.⁴⁶ 이에 비해 현전하는 형의 형태는 손잡이 유무, 무늬 유무, 다리 유무가 모두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으로 제작되었다(그림11, 그림14). 이처럼 형은 문양이나 뚜껑, 손잡이, 다리 등 모양의 변화가 다른 종묘제기들에 비해 비교적 큰 편이다.

다른 종묘제기들과 달리 등과 형의 재질과 형태가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전례서에서 등과 형의 조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전례서에서 대부분의 종묘 제기들의 크기, 장식, 모양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둔 것에 비해 등과 형은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다. 현전하는 유물 중 등과 형을 구분하는 분류기준이나 현재 종묘제례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등과 형이 과연 올바른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등과 형의 조형과 변천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정리하면, 등과 형은 고기국을 담는 제기로 오미와 양념의 여부에 따라 구분했다. 이러한 원리는 변과 두에 담는 제물이 육산과 수산으로 상반된 것과 같은 원리이다. 제물의 종류와 성격에 맞추어, 등은 주로 질박한 재료인 도기로 제작되고 문양은 절제되었다. 이에 비해 형은 금속 재료인 유기로 제작되고 문양이 장식되었다. 등과 형은 국가전례서에 조형이나 크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제기들에 비해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또 제사에서 조상신들의 국그릇 역할을 하는 등과 형은 밥그릇 역할을 하는 보와 껌처럼 신주의 수에 영향을 받는 제기로 신주 1위당 각각 3개씩 늘어나 진설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

46 주석 3 국가전례서와 『宗廟儀軌』祭器圖說의 銅 부분 참조.

4. 조와 생갑

조(俎)는 소·양·돼지 등 날고기[血食]인 희생을 받드는 상(床)이다(그림15). 희생은 정제를 상징하는 제물로 성(腥)이라고도 하며, 종묘제례에는 우성(牛腥)·시성(豕腥)·양성(羊腥)을 올렸다. 희생은 오직 정제에만 올리는 제물로 속제나 흥례에는 올리지 않기 때문에, 희생을 담는 제기인 ‘조’는 정제를 대표하는 제기라고 할 수 있다.⁴⁷

이는 제향 절차를 순서대로 구분하는 명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종묘제향의 절차는 참신(參神)-신관례(神祿禮)·강신(降神)-궤식(饋食)-삼헌(三獻)-사신(辭神)의 순으로 진행된다. 신관례를 통해 신실에 내려온 신령에게 삼헌을 하기 전 궤식을 올릴 때 세 가지 종류의 희생인 소·양·돼지를 담은 생갑(牲匣)을 조에 얹어 각실에 올리는데 이를 천조례(薦俎禮)라 한다. 천조관(薦俎官)이 조를 받들고 봉조관(捧俎官)이 희생을 담은 생갑을 받들여 정전에 입장한다. 희생을 올리는 궤식은 조상을 봉양하는 도리를 다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향의 여러 절차 중 궤식 절차를 통해 종묘제례는 정제의 속성을 갖게 된다. 이처럼 희생을 얹은 조는 정제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낸 제기라고 할 수 있다.

희생을 올리는 조의 모양은 넓적한 판 아래에 다리가 연결된 작은 상(床)의 구조이다. 조는 변과 두, 보와 궤, 등과 형처럼 서로 1:1로 상응하는 기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제기들과 상호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 대신 조에는 그 위에 올리는 부속기물인 생갑이 있다. 생갑은 희생을 담은 나무상자로 나무에 흑칠을 하여 제작했다. 생갑은 날고기를 담은 대생갑과 익힌 고기를 담은

47 이옥, 앞의 논문(2011), 223~231쪽. 1796년(정조 20)에 문답 형식으로 작성된 종묘의례 학습서인 『每事文』에는 술을 바치는 爵와 더불어 익힌 고힌 고기를 바치는 俎가 제기 중 가장 중하다고 하였다. 이범직·최순권, 『정도재 종묘서 관리들의 종묘제향 학습서: 여주 매사문』(서울: 민속원, 2017), 134쪽



그림15-조(가로 49.5cm, 세로 20cm, 높이 23.3cm, 국립고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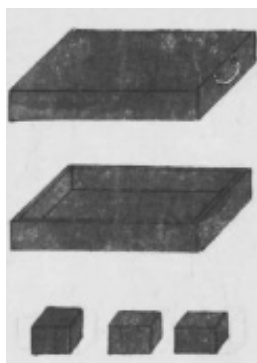


그림16-『정조부묘도감의궤』(1802)의 삼합생갑



그림17-생갑
(가로 51.2cm, 세로 29.8cm, 높이 7cm, 국립고궁박물관)

소생갑으로 나뉜다. 대생갑에는 소·양·돼지의 날고기를 부위별로 나누어 한 갑씩 담아 제상의 남쪽 좌·우·중앙에 올렸다(그림4). 그리고 소생갑에는 익힌 소고기와 양고기의 장·위·폐 그리고 익힌 돼지고기의 껍질을 각각 한 갑씩 담아 신위의 서편에 나란히 올렸다. 이처럼 생갑을 얹은 조의 진설은 제사에서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러한 진설 방식은 다른 제기들이 2개씩 짝을 이루며 좌우 또는 상하로 진설되는 방식과 다르다.

더불어 ‘조’는 제향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희생은 제향의 궤식 절차 중에 전사청에서 신실로 이동시키는 제물이므로, 신실이 증가할수록 궤식의 횟수가 늘어난다. 조선 후기에는 조를 올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조 대 삼생의 고기를 하나의 생갑에 담아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삼합생갑(三合牲匣)을 고안해 제향 시간을 단축했다(그림16, 그림17).⁴⁸ 이처럼 조는 다른 제기들처럼 미리 차려 둔 것이 아니라 제향 중에 별도로 옮기는 제기로서, 제향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특징이 있다.

5. 작

작(爵)은 제주(祭酒)를 담는 술잔이다(그림18). 오행대제 시 작을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의 순으로 세 번 올려 이를 삼헌(三獻)이라고 한다. 작은 술을 중심으로 이행되는 제사의 절차에 따라 다른 제기들에 비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작을 움직이는 단계에 따라 의식절차(洗爵, 執爵, 獻爵)가 세세하게 구분되었다.

작을 놓는 위치는 제상의 가장 남쪽으로, 매 신위마다 3개의 작을 진설한다. 한 신실에 모셔진 왕과 비의 신주가 2위인 경우 총 6개의 작을 진설한다.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절차인 초헌용 작에는 예제(醴齊)를 담고,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용 작에는 양제(盎齊)를 담고, 마지막 잔을 올리는 종헌에는 청주(淸酒)를 담는다. 작은 제상에 올리기 전 준소상의 작비(爵篚) 위에 올려놓았다가 삼헌을 올릴 때 차례대로 술을 담아 제상에 옮긴다. 즉, 앞서 살펴본 조(俎)와 마찬가지로 제향절차에 따라 이동시키는 제기로서, 작은 준소상에서 제상으로 옮겨진다.

작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옆으로 길쭉한 유선형 잔의 아래에 점점 벌어지는 가는 다리가 달린 형태이다. 작의 윗부

48 『正祖實錄』 18년(1794) 1월 3일; 『日省錄』 正祖 18년(1794) 3월 24일; 이욱, 앞의 논문(2012), 171~173쪽; 이욱, 앞의 책(2015), 149~154쪽.



그림18-작
(높이 20.5cm, 국립고궁박물관)



그림19-모혈반
(높이 9.5cm, 조선, 국립고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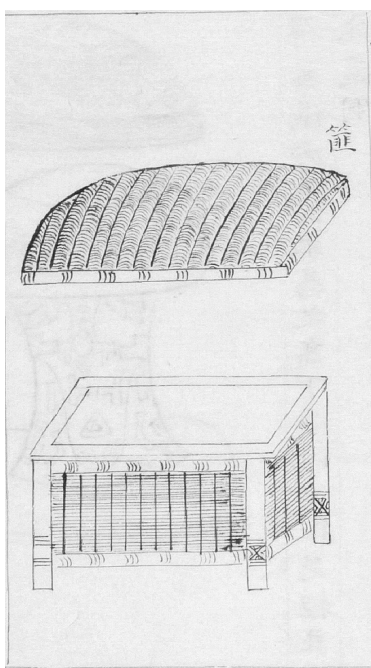


그림20-『세종실록』「오례」
길례서례 제기도설의 비



그림21-『종묘의궤』의 향로

분에 두 기둥이 붙어 있고, 동체 한쪽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다. 국가전례서에서 자주 참용한 『석전』의 내용을 보면, 작의 구조와 세부 명칭을 잘 알 수 있다. 작의 총 높이(다리부터 기둥까지)는 8치 2푼, 잔의 깊이는 3치 3푼, 잔 입구의 최대경은 6치 2푼, 잔의 입구의 좁은 폭은 2치 9푼이다.⁴⁹ 작의 구조를 보면 잔, 기둥[柱], 술을 따르는 부위[流], 손잡이[扳金, 鑿]로 나뉜다. 이처럼 작은 다른 기형에 비해 작으면서도 정교한 구조로 제작되었다. 길고 가는 세 개의 다리, 속이 깊고 유선형의 구연을 이루는 잔, 잔의 가장자리에 솟은 두 개의 기둥장식, 작은 잔의 표면에 장식된 정교한 장식 등 작은 크기에 비해 다양한 조형 양식적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또 종묘제기 중 전체적인 형태가 중요한 제기(변, 두, 조, 작 등), 재료가 중요한 제기(변, 두, 등, 형 등), 문양이 중요한 제기(이, 준, 퇴 등)가 있는데 작은 그중 모양이 중요한 제기에 속한다.⁵⁰

더불어 작(爵)은 지나친 음주를 경계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작의 용량은 1승(升) 정도로 적은 양의 술을 담도록 고안되었고 이마저도 두 개의 기둥을 이용하여 잔 속의 술을 다 마시지 못하도록 [詩禮器圖說云飲器受一升上兩柱取飲不盡之義戒其過也] 하여 탐욕을 경계하는 의미를 담은 제기이다.⁵¹ 이처럼 욕심을 경계하고 절제를 강조하는 작의 조형적 성격은보와 궤의 도철문 장식과 상통한다.

이상으로 제상에 올리는 변, 두, 보, 궤, 등, 형, 작의 개별적인 성격과 신주, 제물, 형태, 재질, 문양 등 다양한 요건들과의 영향관계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 외에 제상의 함께 진설되는 제기들로 모혈반·폐비·간료등,

49 주석 3 국가전례서와 『宗廟儀軌』 제기도설의 작 부분 참조.

50 작은 3개의 다리와 2개의 기둥을 가진 비교적 고정적인 형태를 가진 제기이다. 또 조선시대 문헌사료에 金爵, 玉爵, 籛爵, 木爵 등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작은 다양한 재질로 제작되었고, 대부분의 제기들이 1~2가지의 재질로 제작된 양상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구혜인, 앞의 책(2023), 85~90쪽.

51 『禮記』「禮器」陳注; 위의 책, 86~87쪽.

향로, 향합, 촛대 등이 있고 이 제기들도 오향대제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제기들이다(그림19, 그림20, 그림21).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제기들은 상호관계보다는 개별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이 글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하겠다.

III. 준소상 진설용 제기의 구성과 관계

종묘 오향대제시 신실 밖에는 준소상이 설치되고 이·준·퇴라는 술향아리들이 진설되었다(그림22). 이(彝)의 종류는 4가지로 계이, 조이, 황이, 가이이고, 준의 종류도 4가지로 희준, 상준, 착준, 호준이고, 퇴는 산퇴이다. 총 9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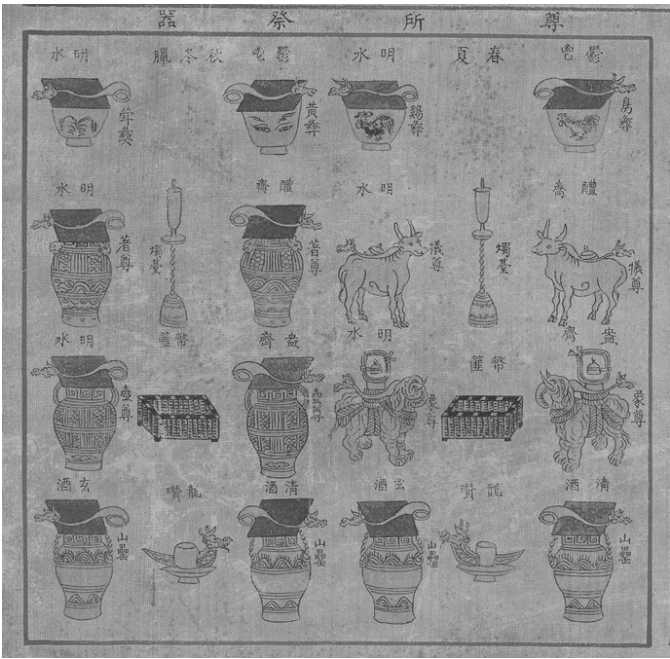


그림22-〈오향친제설찬도〉 중 준소상에 진설된 제기 부분,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 중 6첩(1866~1899년 제작, 국립고궁박물관)

류에 이르는 이·준·뢰를 오향대제의 준소상에 모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거행하는 계절에 따라 선별해 사용했다. 그리고 각 술항아리마다 담은 술과 물의 종류도 구별했다. 이러한 구분은 이·준·뢰 제기가 각각 갖고 있는 계절상의 조형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고 각각의 문양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 이: 계이·조이·가이·황이

이(彝)는 종묘에 항상 두고 사용하는 귀한 술항아리로 여겨졌고, 예기(禮器)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⁵² 또 『예기』에서 “귀한 준[上尊]은 이(彝)라고 하고, 중간의 준은 거(皀)라고 하고, 낮은 준은 호(壺)라고 한다.”라 하여 술항아리 중에서도 이(彝)를 가장 귀하게 여겼다.⁵³ 중국 고대부터 오랫동안 이(彝)에 부여되는 여러 가지 역사적 해석과 상고(尙古)적 인식이 결부되어, 이는 주기 중에서 태묘(종묘)에서 쓰는 주기가 되었다.

이(彝)는 인귀(人鬼)의 강신을 위한 율창주를 담은 술항아리로, 국가와 왕실의 다양한 제례 중 왕실의 조상신을 모시는 일부 제향에만 이(彝)를 진설했다. 종묘 오향대제의 강신 절차에는 네 가지 종류의 이(彝), 즉 계이, 조이, 가이, 황이를 사용했다(그림23~그림26). 계절에 따라 이(彝)에 율창주와 명수를 번갈아 바꾸어 담아 봄에는 계이에 명수를 담고 조이에 율창주를 담고, 여름에

52 『說文』에서는 彝는 항상 常이라는 의미로 사당에 항상 두고 사용하는 물건을 뜻하기도 한다. 『說文』糸部 彝. 고대 중국에서 彝는 종묘 제사를 위한 주기로서, 彝에는 강신을 위한 율창주를 담고 尊에는 음복을 위한 오제를 담았다. 김정열, 「산 자를 위한 죽은 이의 그릇: 중국 商周시대 청동 예기의 성격과 그 변화」, 『미술사학』 27(2013), 329~330쪽 참조. 제기 ‘이’와 지시대명사인 ‘이’가 구분될 수 있도록 한자를 병기하겠다.

53 『禮記』「禮器」, “上尊曰彝 中尊曰皀 下尊曰壺”.

는 계이에 올창주를 담고 조이에 명수를 담았다.⁵⁴ 이어 가을에는 가이에 명수를 담고 황이에 올창주를 담고, 겨울에는 가이에 올창주를 담고 황이에 명수를 담았다.

이(彝)의 동체에 장식된 문양은 계절을 상징한다. 즉, 봄과 여름에 진설하는 계이의 동체에는 동방의 산물로 인(仁)을 상징하는 닭 장식을, 조이에는 남방의 산물로 예(禮)를 상징하는 새를 장식했다(그림23, 그림24).⁵⁵ 그리고 가을과 겨울에 사용하는 가이의 동체에는 벼이삭을 장식하고, 황이에는 청명한 기(氣)를 상징하는 황금 눈 장식[黃目]을 장식했다(그림25, 그림26).⁵⁶ 4종류의 이(彝)에 각각 장식된 문양의 세부적인 요소들은 시기별 변화가 있지만, 문양의 종류 및 위치는 조선시대 내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종묘제기의 조형 양식적 보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선 전기에는 종묘의 오향대제에서만 이(彝)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영조대 궁원제(宮園制)가 성립되면서 생부·생모·형제 등 왕의 사친(私親)을 모신 궁원묘묘(宮園廟墓) 중 일부 공간들에서 종묘처럼 이(彝)를 사용하기 시작했다.⁵⁷ 영조 대 이전까지 이·준·뢰를 모두 진설할 수 있는 공간은 오로지 종묘 오향대제뿐이었으나, 육상궁(毓祥宮)을 시작으로 종묘에 모시지 못한 왕의에게도 이·준·뢰를 진설하는 제향을 거행하게 된 것이다. 또 정조 대 장헌세자(莊獻世子, 후대 추존 莊祖)의 신위를 모신 경모궁 오향대제 친향을 대

54 주석 3 국가전례서와 『宗廟儀軌』 제기도설의 彝 부분 참조.

55 주석 3 국가전례서와 『宗廟儀軌』 제기도설의 鷄彝, 鳥彝 부분 참조.

56 주석 3 국가전례서와 『宗廟儀軌』 제기도설의 黃彝, 罍彝 부분 참조.

57 영조 연간에 국왕 사친의 사당과 무덤을 廟墓에서 궁원으로 높여 왕권과 왕실의 지위를 안정되게 유지하고자 제정한 제도이다. 『毓祥宮昭寧園式例』 毓祥宮〈時祭節祀告由祭祭物陳設圖〉; 『太常志』〈永昭廟春秋享陳設圖〉; 〈儲慶宮春秋享陳設圖〉; 〈各宮廟告由祭陳設圖〉. 궁원제와 궁원의 제기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것. 정경희, 「朝鮮後期 宮園制의 성립과 변천」, 『서울학연구』 23(2004), 158쪽; 박희원, 「조선후기 궁원제와 명문기명」, 『미술사학』 32(2016), 53~60쪽.

사급으로 격상시키면서 경모궁에서도 종묘처럼 이(彝)를 진설했다.⁵⁸ 이처럼 조선 후기 왕실 조상신을 모시는 제향 공간의 확산은 그만큼 이(彝)를 사용하는 의례가 많아졌다는 물질적 의미로도 바꿔 이해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이(彝)를 받치는 쟁반인 주(舟)라는 기물에는 조선의 정치외교 상황이 내포되어 있다. 조선시대 편찬된 국가의례서에 실린 이(彝)에는 본래 주(舟)가 갖춰지지 않았고 숙종 대와 영조 대에 이루어진 대보단(大報壇) 조성 과 증수 과정에서 주(舟)가 사용되기 시작한다.⁵⁹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숙종 30년(1704) 임진왜란 당시 군병을 보내 조선을 도운 명나라 신종(神宗)을 향사하기 위해 창덕궁에 대보단(大報壇)을 조성했고, 영조 25년(1749) 대보단을 증수하여 신종 외에 명나라 태조(太祖)와 의종(毅宗)을 같이 제사지냈다. 이 과정에서 편찬한 『황단의』, 『황단증수의』에 실린 도설에 네 종류의 이(彝)와 받침인 주(舟)가 실려 있다.⁶⁰ 이때까지 조선시대 종묘 오향대제에는 이(彝)

58 『景慕宮儀軌』 設饌圖說: 祭器圖說. 경모궁 향사는 종묘 오향대제에 진설된 제기와 거의 비슷하지만, 변과 두를 2개씩 줄여 10개씩 진설했다. 또 신위 수에 영향을 받는 보·궤는 2개씩, 등·형은 3개씩, 작은 3개를 진설했다. 경모궁 친향 시 대사 수준으로 거행되었으나 종묘 오향대제 제상과 비교하면 변두를 통해 한 단계 낮은 격이나, 오향대제 준소상에는 종묘의 주기인 彝를 올려 종묘의 준소상과 동일한 위격으로 맞추었다. 즉, 변·두의 수량을 통해 경모궁과 종묘의 차이를 두었지만, 그 간극을 최소화했다고 여겨진다.

59 『周禮』 「司尊彝」에 “강신제에 제이와 조이를 쓰니 모두 舟가 있다[禋用鷄彝 鳥彝皆有舟].”라고 하여 彝 아래에 舟를 바쳤다. 중국 『三禮圖集注』, 『三禮圖』, 『大明集禮』에 주를 갖춘 이가 도설로 실려 있고, 이 가운데 조선은 『大明集禮』 도설의 영향을 받았다.

60 대보단 제기는 명나라 황실 제사를 대신 지낼 때 사용한 제기이므로 조선시대 종묘 오향대제용 제기의 특징을 이해하는 중요한 비교군이 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祭器圖》(장서각소장)와 『大明集禮』의 비교를 통해 대한제국기 이후 국내에서 주를 갖춘 이가 사용되었다고 보는 해석, 일부 유물에 음각된 ‘壬辰造’란 기년명을 통해 1892년(고종29)에도 주를 갖춘 이를 제작했다는 해석이 있다. 손명희, 앞의 논문(2014), 193쪽; 하은미, 앞의 논문(2015), 240쪽. 필자가 살펴본 결과 오향대제에 ‘주를 갖춘 이’를 진설한 시기는 대한제국기부터이지만, 영조 대 대보단에서 이미 ‘주를 갖춘 이’를 진설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皇壇儀』 祭器圖說: 『皇壇重修儀』 祭器圖說. 따라서 국내 ‘주’의 제작 및 사용은 영조 대, 이르면 숙종 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구혜인, 앞의 논문(2019), 103~104쪽. 또 ‘壬辰造’라는 명문이 있는 유물은 고종



그림23-계이
(높이 25cm,
국립고궁박물관)



그림24-조이
(높이 23.4cm,
국립고궁박물관)



그림25-황이
(높이 23.3cm,
국립고궁박물관)



그림26-가이
(높이 23.5cm,
국립고궁박물관)



그림27-계이
(높이 20.5cm,
받침 높이 13.4cm,
국립고궁박물관)



그림28 조이
(높이 20.4cm,
받침 높이 13.0cm,
국립고궁박물관)



그림29-황이
(높이 21cm,
받침 높이 13.3cm,
국립고궁박물관)



그림30-가이
(높이 21cm,
받침 높이 13.3cm,
국립고궁박물관)

와 주(舟)를 함께 진설하지 않았으나, 명 황실의 조상을 모시는 장소인 대보단 제향에서는 황실 태묘의 예법을 따라 이(彝)를 주(舟)에 받쳐 올려 조선의 예법과 구분했던 것이다. 조선시대 내내 종묘 제기에서는 주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부터는 이(彝)를 주(舟) 위에 올려 진설했고 이 시기 제작한 유물이 현전하고 있다(그림27~그림30, 그림38).⁶¹ 이처럼 이(彝)의 받침인 주(舟)는 제후국과 황제국의 종묘제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29년 대보단 제향을 위해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주를 갖춘 이’는 국가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61 이러한 변화는 『대한예전』에는 등장하지 않고, 대한제국기에 제작된 <진설도>를 통해 알 수 있다.

2. 준과 퇴: 희준·상준·작준·호준·산퇴

준(尊)과 퇴(罍)는 국가제례에서 술과 물을 담는 주기(酒器)이자 수기(水器)이다. 조선시대 오향대제에서는 술·물의 종류와 준·퇴의 종류가 서로 연관된 것끼리 짝을 짓고, 술의 성격과 문양의 성격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준과 퇴에 물과 술을 각각 담았다. 이 절에서는 오향대제에 사용된 희준, 상준, 작준, 호준, 산퇴의 여러 요소들과 상호관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조선 전기에는 국가제사에서 준퇴 제도를 5준(대준·희준·상준·작준·호준) 1퇴(산퇴)로 운영했다.⁶² 5준 1퇴를 모두 사용한 국가제사는 조선 전기에 거행된 종묘 협향(裕享)으로, 성종 대에 황제의 예라고 하여 협향을 폐지하면서 조선에서는 5준 1퇴를 모두 사용하는 제례는 거행되지 않았다. 대신 제사의 성격에 따라 5준 1퇴를 선별하여 4준 1퇴, 3준 1퇴, 2준 1퇴, 1준 1퇴로 운영되었다.⁶³

종묘 협향 다음으로 가장 많은 종류의 이·준·퇴를 사용하는 제향은 종묘 오향대제이다. 구체적으로 앞서 살펴본 계이, 조이, 가이, 황이로 구성된 4이(肆), 희준, 상준, 호준, 작준로 구성된 4준 그리고 산퇴를 계절에 따라 계절별로 이(肆) 2개, 준 4개, 퇴 2개를 선별해 조합하여 준소상에 진설했다(그림31~그림37).⁶⁴ 예를 들어 봄과 여름에는 조이와 계이에 율창주와 명수, 희준에 예제와 명수, 상준에 양제와 명수, 산퇴에 청주와 현주를 담는다. 그리

62 박봉주, 앞의 논문(2011), 202쪽. 박봉주는 중국 예서에서 6준이 5준 1퇴로 변화하는 과정과 5준 1퇴와 오제 삼주가 대응하여 조합을 이루는 방식을 규명했다.

63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의 논문, 213~233쪽을 참고할 것.

64 조선시대에 봉행된 다양한 국가제사 중 종묘가 1년에 다섯 차례 지내는 오향제를 올렸고, 중규모의 제사들은 1년에 2~3차례 정기 제사를 올렸으며, 소규모 제사 대다수는 1년에 한 차례의 정기 제사를 올렸다. 2종의 이, 2종의 준, 산퇴를 진설하는 조선시대 제사로, 종묘의 오향대제, 경모궁, 육상궁, 저경궁, 의소묘의 시향 등이 있다.

고 가을, 겨울, 납일에는 황이와 가이에 올창주와 명수, 착준에 예제와 명수, 호준에 양제와 명수, 산뢰에 청주와 현주를 담았다(표3).

우선 희준과 상준은 봄, 여름 제향에 사용된 주기로, 희준의 '희(犧)'는 소와 양을 의미하고 상준의 '상(象)'를 의미한다(그림31~그림34). 『예서』에서 “소는 큰 희생이고, 기름이 향내가 나므로 봄의 형상에 적당하고, 코끼리는 南越에서 생산되니, 이것이 선왕께서 희준과 상준을 봄의 사[祠] 제사와 여름의 약[禴] 제사에 사용했던 까닭이다.”라고 하여 희준과 상준을 봄과 여름에 사용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⁶⁵ 조선 전기에는 발(鉢) 형태의 기물에 소와 코끼리를 새겨 희준과 상준을 제작했으나, 성종 대부터 소와 코끼리의 형상을 본떠 제작했다.

다음으로 착준과 호준은 가을과 겨울 제사에 올리던 주기로, 호준에는 양제와 명수를 담고 착준에는 예제와 명수를 담았다(그림35, 그림36). 중국의 『예서』에는 착준과 호준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다. 즉, 착준은 양이 내려와서 땅에 부착된 것을 형상했으며, 호준은 음이 빙 둘러서 만물을 감싼 것을 형상했으니, 이것이 선왕께서 착준과 호준을 가을 제사[嘗]와 겨울 제사[烝]에 사용했던 까닭이라고 했다. 착준의 '착'은 양(陽)이 내려와 땅에 붙는 것을 의미하는 한자로, 착준의 기면에는 양기가 위로부터 차츰차츰 내려와 서서히 땅에 닿는 모습을 상징하는 문양을 새기거나 그려 넣었다. 『세종실록오례의』에 실린 착준은 기운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데, 파동이 큰 곡선이 동체의 중심을 돌아가고 여백에 여러 작은 무늬들이 배치되어 양기가 내려오는 모습으로 『석전의』 제기도설의 영향을 받았으나 더욱 정교하다. 한편 『세종실록오례의』에 실린 호준은 좌측 상단에서부터 지류(地流)처럼 뿔어 내려오는 선들과 기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소용돌이 문양도 음의 기운을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65 주석 3 국가전례서와 『宗廟儀軌』 제기도설의 희준, 상준 부분 참조.



그림31-『세종실록』
「오례」길례서례
제기도설의 희준



그림32-『세종실록』
「오례」길례서례
제기도설의 상준



그림33-희준
(높이 26.5cm,
조선 후기,
국립고궁박물관)



그림34-상준
(높이 35.0cm,
조선 후기,
국립고궁박물관)



그림35-착준
(높이 24.5cm,
조선 후기,
국립고궁박물관)



그림36-호준
(높이 22.5cm,
조선 후기,
국립고궁박물관)



그림37-산뢰
(높이 27cm,
조선 후기,
국립고궁박물관)



그림38-《진설도》 중
준소상 부분(대한제
국기 추정, 한국학중
양연구원 장서각)

럼 희준, 상준, 호준, 착준은 동체에 사용 시기나 의미를 구체적인 문양이나 형태를 통해 상징했고 이는 주기인 이(彝)와 상통한다.

마지막으로 산뢰는 몸체에 구름이 낀 산의 형세와 우레 문양을 장식한 주기이다(그림37). 산뢰에는 음복례에 쓰이는 청주와 현주를 담아 준소상에 올렸다. 조선시대 국가전례서가 참고한 『예서』에 따르면, “산에 구름이 있는 형상을 만든다. 뫼라 이르는 것은, 구름과 우레가 널리 혜택을 베풀어 人君이 은혜를 여러 신하들에게 미치게 함과 같음을 취하여 형상한 것이다. 산뢰는 하나라 禹王의 준이다.”라고 했다. 즉 『예서』에 따르면 산뢰의 ‘鼉’는 우레를 뜻하는 ‘雷’나 ‘鼍’에서 假借한 것으로 구름과 우레가 널리 혜택을 베푸는 것이

마치 왕의 은혜가 여러 신하에게 미치는 것과도 같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산 퇴에 담은 제주인 청주와 현주도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음복주로서, 인군의 은혜를 상징화한 산퇴의 뇌문은 군신 간의 은혜와 충성을 상징화한 것이라 해석된다.

더불어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 종묘 오향대제용 제기들의 구성과 진설 방식은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준소상에 이, 준, 퇴에 주(舟)와 운점(雲站)을 받쳐 황제국의 준소상 예법을 갖췄다는 점에서 이, 준, 퇴는 구체적인 조형과 구성에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 반영되는 제기였다고 할 수 있다.⁶⁶

IV. 오향대제용 제기의 성격: 개별과 전체의 상호작용과 조화

종묘 오향대제에 사용되는 제기들은 모두 각자의 기능, 형태, 재질, 문양 등의 다양한 요소를 개별적으로 갖고 있고 동시에 각 요소들끼리 밀접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더불어 제기는 주변 조건들, 예를 들어 제기를 진설하는 수량과 위치, 제기들끼리의 친연성, 신실별 신주의 개수와 공간의 크기, 제사를 거행하는 계절 등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만약 제기의 내부 요소나 외부 환경에 변수가 발생하면 제기들은 서로 연동하여 변화하기도 하고, 이러한 변화가 제상과 준소상의 진설 방식에 변화를 야기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제기들의 개별적인 속성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종묘 오향대제용 제기들 간의 상호관계를 고찰하겠다.

66 이 밖에도 준소상에는 이·준·퇴 외에도 땅에 술을 붓는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瓚, 이·준·퇴에 담긴 술과 물을 뜨는 勺, 제주가 오염되지 않도록 이·준·퇴의 입구를 덮는 冪이 함께 놓였고 작과 먹은 이준퇴의 개수대로 준비되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분석을 생략하겠다.

1. 제기들의 개별 속성과 상호관계

종묘 오향대제용 제기의 중요한 역할은 제물을 담기 위한 용기이다. 또 제기의 조형과 장식을 통해 제사를 아름답게 하는 장식적 기능도 갖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제기는 제례의 절차(진찬, 헌작, 봉궐)를 이행시키는 도구이고, 제례의 성격(정제, 속제)이나 위계(대사, 중사, 소사)를 가시화하는 물질이기도 하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종묘 오향대제용 제기들이 내포한 다양한 개별 요소들이 연결되어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방식들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2, 표3).

첫째, ‘제기, 제물, 신주’와의 상호관계이다. 신주의 수에 따라 제기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일견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원칙이 모든 제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보, 궐, 등, 형, 작은 신주의 수에 비례하는 제기였고, 이에 비해 변, 두, 조, 이, 준, 퇴 등의 제기는 신주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하게 고정된 수를 사용했다. 이러한 차이는 제기에 담는 제물의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보와 궐은 각자의 밥을 담는 반기(飯器)이고, 등과 형은 각자의 국을 담는 갹기(羹器)이며, 작은 각자의 술을 담는 주기(酒器)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 궐, 등, 형, 작은 진설 개수는 신주의 수에 비례했다. 이에 비해 변, 두, 조, 이, 준, 퇴는 조상신들이 함께 나누는 제물을 담는 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변과 두는 각종 찬물을 담는 찬기(饌器)이고 조는 희생을 올리는 육기(膾器)이고, 이, 준, 퇴 역시 함께 나누어 마시는 술과 물을 담는 주기(酒器)이자 수기(水器)인 것이다. 그래서 변, 두, 조, 이, 준, 퇴는 신주 수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그 대신 상대적으로 제사의 성격이나 위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변과 두의 진설 개수로써 통해 제사의 위격을 가시화하고, 조의 유무로써 정제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냈으며, 이(彝)의 유무로써 왕실 조상제사라는 성격을 나타

내고, 준의 형태와 문양으로써 계절의 차이를 상징했다.

둘째, ‘제기 재질, 제물, 사상’과의 상호관계이다. 종묘 오향대제용 제기를 제작할 때 사용한 재료 중 흙, 나무, 대오리 등은 질박한 재료에 속한다. 이에 혼한 재료로 만든 제기는 왕실의 가장 중요한 제사인 종묘제향에 일견 어울리지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검박함을 숭상하고 귀하게 여기는 유교주의적 인식을 왕실 제향에 반영했다고 읽힌다. 이는 제기 중 흙, 나무, 대오리로 만든 제기들의 위치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오리로 제작한 변, 옷칠한 나무를 재료로 만든 변을 각각 12개씩 제상의 좌우에 도열시키고, 흙을 구워 만든 등은 신주의 바로 앞에 진설했다. 변과 두에는 자연에서 구한 육산과 수산을 담았고, 등에는 오미와 양념을 섞지 않은 제물을 담아 제기의 재질과 제물의 성격이 완벽하게 어울리게 했다. 그리고 희생을 담은 조를 들고 들어오는 의식을 제향 중에 실행하고 제상 위 곳곳에 배치하여 유교식 정제로서의 성격을 드러냈다. 한편 보, 궤, 형, 작은 합금동 재질인 유기로 제작해 제상의 가운데에 놓아 후손의 지극한 정성을 가시화하고 제상의 풍성함을 배가하는 데 시각적으로 일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찬가지로 신실 기둥 밖에 진설했던 준소상 위의 이, 준, 궤도 합금동 재질로 제작해 줄을 맞춰 진설했다. 질박함과 화려함이 공존하는 제상과 준소상의 모습은 종묘 오향대제에 참석한 이들에게 종묘 제향의 근원을 상기시키고 권위를 각인시키는 데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제기의 크기와 진설 효과’와의 관계이다. 종묘 오향대제의 제상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12개씩 도열한 제기는 변과 두이다. 변과 두의 높이는 모두 5치 9푼으로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8cm 내외이다. 현전하는 변과 두의 높이도 대체로 높이 18cm 내외로 확인되어 조선시대에 변과 두의 제작 제도를 지켜 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변과 두의 높이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제상의 조화로운 정연함을 연출하기 위한 방식으로 읽힌

다. 만약 변과 두에 담기는 제물은 총 24개에 이르고 그 종류는 모두 다른데, 만약 변과 두의 크기나 모양이 다르다면 제상의 모습은 조화로움과 멀어지게 될 것이다. 높이와 너비를 엄격하게 규제해 제작한 변과 두에 제물을 정성껏 담아 제상의 좌우에 12개씩 도열시킴으로써 좌우로 안정된 제상의 구도를 조성할 수 있었다. 또 제상 중간에 진설된 등, 형, 보, 궤, 조, 작 등의 모양과 높이가 서로 다르더라도, 제상의 좌우로 동일한 높이와 형태의 변과 두가 길게 줄을 맞춰 진설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상이 안정되어 보이는 효과가 생겼다고 여겨진다. 조선시대 내내 국가전례서 제기도설에 기록된 제기의 크기와 형태를 최대한 따르면서 종묘제기를 제작한 문화는, 동시기 명·청대 중국 황실 제향용 제기들이 큰 변화를 보였던 현상과 비교해 조선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제기의 문양, 용도, 상징’과의 관계이다. 조선시대 종묘 오향대제용 제기들은 도철문, 기하학문을 비롯해 소, 코끼리, 닭, 새, 벼이삭, 눈, 산, 우레, 음기, 양기 등 다양한 문양들로 장식되었다. 각각의 문양들은 계절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정한 의미를 상징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닭을 장식한 계이, 새를 장식한 조이, 소를 장식한 희준, 코끼리를 장식한 상준은 모두 따뜻한 봄과 여름을 상징했다. 벼이삭을 장식한 가이, 청명한 기를 상징한 눈을 장식한 황이, 음기가 둘러싸고 있는 형상을 장식한 착준, 양기가 땅으로 내려오는 형상을 장식한 호준은 모두 가을과 겨울을 상징하여 계절에 맞게 사용되었다. 각각의 제기들을 사용하는 시기와 내포한 의미들을 ‘문양’이라는 요소를 통해 나타내는 방식은 중국 예서에서 유래한 것이다. 조선에서는 중국 예서의 바탕 위에 조선의 미감에 부합하는 문양 표현 방식을 선택했고, 조선 전기 제기제도의 수립 이후에는 조선시대 내내 큰 변화없이 준수했다.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부단히 원형을 고수하려는 노력의 산물로 이는 국가전례서에 꾸준히 수록된 제기도설이나 『종묘의궤』, 제의

표2-제상용 제기의 개별 속성과 상호관계

	변	두	등	형	보	괘	조	작	축대	축판	모혈반	간료등
제물	육산	수산	대갱	화갱	벼 기장	피 기장	희생	제주			털, 피	간, 기름
개수 (개)	12	12	6, 9, 12	6, 9, 12	4, 6, 8	4, 6, 8	5(3)	6, 9, 12	2	1	1	1
개수의 의미	양 (짝수)	양 (짝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음 (홀수)	없음	없음			
개수의 변화	없음	없음	3개× 신주수	3개× 신주수	2개× 신주수	2개× 신주수	없음	3개× 신주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시간의 영향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괘식)	있음 (헌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위치 (신위 방향)	좌	우	중	중	중	중	중,우	중	좌,우	우	우	좌
높이 (치푼리)	5.9	5.9	미기재	미기재	6.7 (뚜껑 포함)	7.0 (뚜껑 포함)	미기재	8.2 (다리, 기 등포함)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재질	竹	木	陶/鎡	鎡	鎡	鎡	木	鎡	鎡	木	鎡	鎡
	질박	질박	질박									
형태					方	圓						
					地方	天圓						
무늬			꾸밈 없음	꾸밈 있음	도철	도철						
			제물 성격 반영	제물 성격 반영	탐식 경계	탐식 경계						
이동	이동 (철변두)	이동 (철변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동 (천조)	이동 (작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도병 제작을 통해 가능했다. 조선에서 송대 『소희주현석전지도』 등 중국 예서를 주로 참작해 제작했으나, 조선의 제기가 중국의 제기와 형태나 장식적 요소들과 서로 다른 것은 각 나라마다의 미감과 제작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대한제국이라는 정치적 변화와 그 영향이 종묘제향에 진설하는 이(彝)

표3-준소상용 제기의 개별 속성과 상호관계

		계이	조이	가이	황이	희준	상준	착준	호준	산뢰
제물	봄	명수	울창주			예제 명수	앙제 명수			청주 현주
	여름	울창주	명수			앙제 명수	예제 명수			청주 현수
	가을			명수	울창주			예제 명수	앙제 명수	청주 현수
	겨울			울창주	명수			앙제 명수	예제 명수	청주 현수
개수		1	1	1	1	2	2	2	2	2
개수의 변화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신주 수 영향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높이 (치퐁리)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8.2	6.8	8.4	8.45	미기재
재질		鍬	鍬	鍬	鍬	鍬	鍬	鍬	鍬	鍬
무늬		닭	새	벼이삭	눈	소	코끼리	기운	기운	구름 우뢰
상징		동방의 산물/仁	남방의 산물/禮	추수한 벼이삭	청명한 기	큰희생/ 봄/ 祠, 禰	월남/ 祠, 禰	음기가 돌러쌌/ 嘗, 烝	양기가 땅으로 내려옴/ 嘗, 烝	인군의 은혜
이동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기타		주가 갖추어진 이는 황제국 제사				운점이 갖추어진 준뢰는 황제국 제사				

에 주(舟) 위에 올리고 준뢰(尊罍)를 운점(雲沾) 위에 올리는 등 제상 위 제기받침에까지 미치게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중국 의례서로부터의 영향을 증시하는 기존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조선시대 종묘 오향대제용 제기들의 다양한 상호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이유는 조선 오향대제용 제기에 고유한 성격이 내재되어 있고 조선 특유의 운영 방식이 작동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제기 전체 구성의 변화와 조화의 의미

조선시대 종묘 정전은 하나의 건물 안에 신실을 나누어 신주를 모시는 동당이실(同堂異室) 제도를 적용하여 현재 19개의 신실에 태조를 비롯한 왕과 왕비의 신주 49위가 모셔져 있다. 한 개의 지붕 아래 동일한 너비의 신실 한 칸이 19번 반복되어 가로로 길게 이어지는 종묘의 건축 구조는 조선왕조가 대대손손 번창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보여준다(그림39). 1실부터 19실에 이르는 신실내부도 신주장(神主幃), 신탕(神榻), 책장(冊幃), 보장(寶幃)으로 구성된 목재 구조물들이 똑같은 구조로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하지만 신실공간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여러 변수들로 인해 다양한 변화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인은 신주의 수이다. 종묘의 신실 제기 진설은 왕과 정비 두 분의 신주를 모실 경우를 가장 기본으로 삼았고, 국가전례서와 도병(圖屏)의 오향친제찬실준위도설의 제상차림들도 모두 신주 2위를 모시는 경우로 나타냈다(그림4, 그림40). 현재 종묘 정전에서 왕과 정비 두 분의 신주를 모시는 신실은 모두 열 칸으로, 태종(1실), 세종(3실), 세조(4실), 효종(9실), 현종(10실), 정조(13실), 순조(14실), 문조(15실), 철종(17실), 고종(18실)의 신주를 모시는 신실이다. 그 밖에 조선 시대에는 정비 외에 후비가 한 분 또는 두 분이 계시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각 신실의 신주의 개수는 3위 또는 4위로 증가한다. 예를 들어, 왕, 정비, 한 분의 후비의 신주 3위를 모시는 신실은 태조(2실), 성종(5실), 선조(7실), 인조(8실), 영조(12실), 현종(16실), 순종(19실)로 모두 일곱 칸의 신실이다. 그리고 왕, 정비 그리고 두 분의 후비 신주 4위를 모시는 신실은 중종(6실), 숙종(11실)로 모두 모두 두 칸의 신실이다.

종묘 오향대제에 사용되는 제기의 개수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

료들이 부족한 가운데, 조선시대 사료 중에서 종묘 오향대제에 사용되는 제기의 수를 기종별로 합산해 기록한 경우는 현재 종묘 제향을 위한 각종 사항들을 기록한 실무서인 『매사문』이 유일하다. 『매사문』에는 정전에서 오향대제 거행 시 사용하는 기종별 제기의 총 수량이 기록되어 있다.⁶⁷ 이를 나열하면 작은 111개, 등은 125개, 형은 111개, 보 74개, 궤 74개, 변 168개, 두 168개, 반 14개, 조 56개, 생갑 56개, 비 14개, 향로 14개, 향합 14개, 축판 14개, 축대 28개, 등잔 28개로 이상 1,096개이다.

『매사문』에 구체적인 숫자가 기록되기는 했지만 이 숫자들은 신실 전체에서 사용한 제기들의 기종별 합산으로, 각 신실마다의 제기 수량은 알기 어렵다. 이에 제Ⅱ장과 제Ⅲ장에서 살펴본 제기마다의 속성과 신주 수와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계산해 신실별 제기의 개수를 도출했다. 즉, 신주가 한 위(位)씩 늘어날 때마다 작은 3개씩, 보와 궤는 2개씩, 등과 형은 3개씩 증가시켜 계산하고 나머지 제기들(제상의 반, 조, 생갑, 비, 향로, 향합, 축판, 축대, 등잔과 준소상의 용찬, 계이, 조이, 가이, 황이, 희준, 상준, 착준, 호준, 산뢰, 축대)들은 신주의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를 반복시킨 결과, 제기의 수가 『매사문』에 기록된 숫자에서 남는 수 없이 정확하게 떨어진다(표4, 표5, 표6). 다시 숫자를 합산하면 『매사문』에 기록된 제기의 기종별 총합과 일치한다. 이처럼 『매사문』의 제기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검토를 통해 앞서 살펴본 제기별 속성과 진설방식에 대한 연구의 결론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부 제기가 신주의 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종묘 오향대제 시 신실마다 진설된 제기들은 모두 동일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보, 궤, 등, 형, 작처럼 일부

67 이 글에서 제기하는 숫자는 대한제국기에 부기된 동양문고본의 내용을 따랐다. 위의 책, 55~57쪽.

제기의 수가 신주의 수에 비례해 3배, 4배씩 늘어나면서 신실마다 제상의 모습이 달랐다. 이로 인해 4위의 신주를 모시는 중종과 숙종의 신실에는 제기를 올려놓을 제상 공간이 부족해지는 변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종묘의 신실은 미리 건축되기 때문에 신실에 모실 신주가 3위나 4위가 되더라도 신실 공간을 옆으로 늘릴 방도는 없었다. 그리고 종묘의 건축구조는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하게 변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르고 고르게 그리고 영구히 지속되는 모습을 지향했다.

이에 중종과 숙종의 신실에서는 많은 제기들을 제상에 모두 올리기 위해, 제상의 너비를 다른 신실보다 가로로 늘려 제작하고 제기의 간격을 좁혀 진설하는 해결 방법을 택했다(그림41). 제상의 면적이 좁다고 제기의 수량을 감한 것이 아니라, 제기마다 내포한 고유의 성격을 모두 반영하여 제상을 차린 것이다.⁶⁸ 일견 종묘 제상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조화로워 도식적으로 복사하듯 반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생하는 각각의 변수들을 모두 반영하면서 동시에 전체적인 제상의 조화로우름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두 고려했던 것이다. 이 점이 조선시대 오향대제용 제기의 성격과 진설 방식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신주의 수에 따라 특정 제기들의 수가 증가하고 이에 대응해 제상의 너비가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므로, 왜 이 현상이 중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제기 전체에서 일부 제기들만 신주 수에 비례해 진설개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제기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조상신께서 밥, 국, 술은 각자 즐기시고, 반찬과 희생은 나누어 즐기시도록 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즉 후손들이 제상을 정성스럽게

68 이를 위해 모든 신실의 제기를 기종별로 분류해 합산한 숫자가 『매사문』에 기록된 것이므로 정조 대~대한제국기 동안 오향대제용 제기의 엄격한 관리체제도 알 수 있다.

표4-종묘 정전 오향대제 시 제상 제기의 기종별 수량

	1 실	2 실	3 실	4 실	5 실	6 실	7 실	8 실	9 실	10 실	11 실	12 실	13 실	14 실	15 실	16 실	17 실	18 실	19 실	
王	태 조	태 종	세 종	세 조	성 종	증 종	선 조	인 조	효 종	현 종	숙 종	영 조	장 조	정 조	순 조	문 조	헌 종	철 종	고 종	총합
妃	2	1	1	1	2	3	2	2	1	1	3	2	1	1	1	1	2	1	-	28
神主	3	2	2	2	3	4	3	3	2	2	4	3	2	2	2	2	3	2	-	46
작	9	6	6	6	9	12	9	9	6	6	12	9	6	6	6	6	9	6	-	138
등	9	6	6	6	9	12	9	9	6	6	12	9	6	6	6	6	9	6	-	138
형	9	6	6	6	9	12	9	9	6	6	12	9	6	6	6	6	9	6	-	138
보	6	4	4	4	6	8	6	6	4	4	8	6	4	4	4	4	6	4	-	92
궐	6	4	4	4	6	8	6	6	4	4	8	6	4	4	4	4	6	4	-	92
변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	216
두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	216
반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18
조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	108
생갑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	108
비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18
향로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18
향합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18
축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18
축대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	36
등잔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	36
합계	84	71	71	71	84	97	84	84	71	71	97	84	71	71	71	71	84	71		1408

* 『매사문』 동양문고본 기준, 대한제국기.

차리는 것만으로 효행을 실천한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마치 실제처럼 신주한 분마다 밥과 국 그리고 술을 올린 것이다. 이로 인해 제기가 늘어나고 제상 공간이 부족해져 너비가 더 긴 제상을 마련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더라도

표5-종묘 정전 오향대제시 준소상 제기의 기종별 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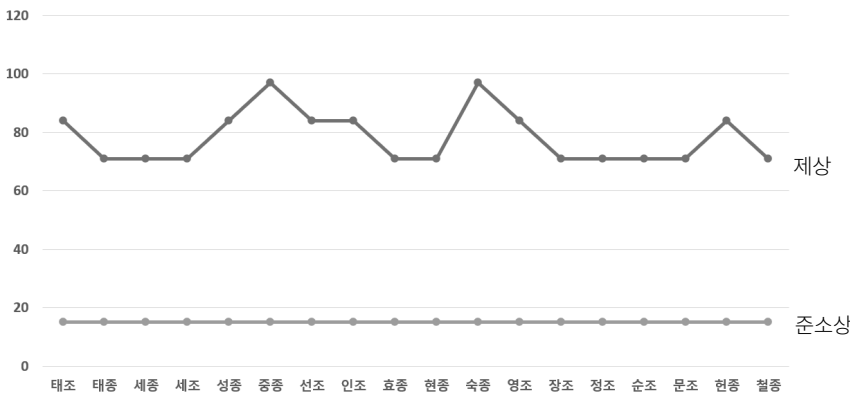
	1 실	2 실	3 실	4 실	5 실	6 실	7 실	8 실	9 실	10 실	11 실	12 실	13 실	14 실	15 실	16 실	17 실	18 실	19 실	
王	태 조	태 종	세 종	세 조	성 종	중 종	선 조	인 조	효 종	현 종	숙 종	영 조	장 조	정 조	순 조	문 조	헌 종	철 종	고 종	총합
妃	2	1	1	1	2	3	2	2	1	1	3	2	2	1	1	1	2	1	-	28
神主	3	2	2	2	3	4	3	3	2	2	4	3	2	2	2	2	3	2	-	46
용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18
계이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18
조이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18
가이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18
황이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18
희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18
상준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	36
착준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	36
호준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	36
산퇴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	36
축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18
합계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270

* 『매사문』 동양문고본 기준, 대한제국기.

제기진설의 원칙을 지킨 사실을 통해 조선시대 종묘제기의 고유한 성격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신실별 제기의 수가 달라진다는 점이 아직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아서인지 종묘 제향 장면이 실린 안내 책자나 전시도록을 보면 여러 오류들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신주 3위가 모셔진 신실 장면의 제상 장면에서 등과 형이 9개씩 놓여야 하지만 신주 2위에 해당하는 6개씩 놓였다. 또 제상 공간이 좁아서인지 조와 모혈반의 위치를 잘못 진설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살

표6-고종 대 종묘 신실별 제상과 준소상의 오향대제용 제기수량 비교



펴보았듯이 조선시대 동안 제상의 길이를 늘려서라도 제기의 개수와 진설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려고 했던 문화와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종묘제기들 간의 상호관계와 제상에서의 진설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작게나마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V. 결론

조선시대 종묘 오향대제용 제기는 종묘제향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 조선왕실 물질문화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종묘 제기는 제물을 담는 기본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후손의 정성을 구체적인 물질로써 가시화하고, 조선의 국가 이념인 유교의 정치사상을 실현시키는 기물이었다.

종묘 오향대제에 진설되는 다양한 제기들은 국가전례서에서 정한 바대로 각각의 용도가 있고, 제기별로 재질, 형태, 크기, 문양을 갖추 제작되었다.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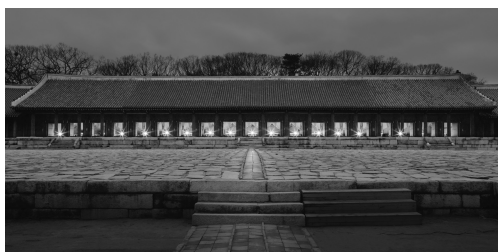


그림39-종묘 정전의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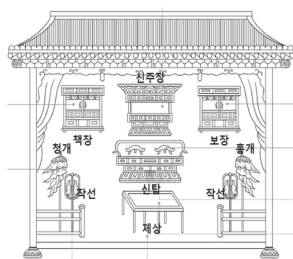


그림40-『종묘의궤』(1706)의 <종묘일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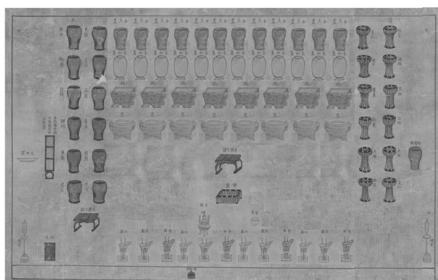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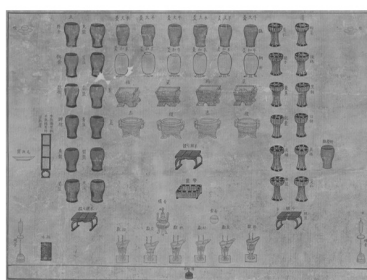


그림41-종묘 신실 신주별 제기진설 장면 비교
(왼쪽: 신주가 2위일 경우, 종묘오향친제설찬도 중 부분/ 오른쪽: 신주가 4위일 경우)

기들이 내포한 각 요소들은 서로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제상과 준소상 위에 진설되었다. 조선시대 국가제사 중 가장 많은 수의 제물과 제기가 진설되는 제향인 종묘 오향대제에서 제기의 진설 방식은 제물의 풍성함을 가시화하는 동시에 절제와 균형의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신실의 제상에 오르는 제기는 신주의 수에 영향을 받는다. 즉, 보, 궤, 등, 형, 작은 신주수에 따라 증가하는 제기로써, 이는 조상신께서 각자 밥, 국, 술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뜻이 있었다. 이에 비해 변, 두, 조, 이, 준은 신주수와 상관없이 모든 신실에서 동일하게 진설되었고, 이는 찬, 희생, 술을 함께 나누어 드신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신실 19칸에 진설된 제기들의 구성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실의 상황에 따라 다른 구성을 이

루고, 동시에 제상 위 제기들간의 균형과 조화로움이 공통적으로 유지된 점도 주목된다.

오향대제용 제기가 단지 중국 예서에 바탕을 두고 제작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중국의 다양한 제기들 중에서 조선의 기준에 적합한 제기들을 엄선하고, 조선의 재료를 사용해 조선의 조형적 미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고, 조선의 외교적 위치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진설되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종묘제기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읽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조선의 종묘제기의 기종과 조형이 중국의 예서에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태묘 제기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오향대제용 제기의 개별 속성을 최대한 추출하고 그 속성들이 신주라는 변수에 의해 변화하면서도 조화로운 모습의 제상과 준소상을 구성하게 된 과정과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으로 이 글에서 언급한 제기마다의 개별적 속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로써 조선시대 종묘제기가 갖는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계속 탐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景慕宮儀軌』(규장각, 奎13632).
『國朝五禮儀』.
『國朝五禮通編』.
『宮園式例』(장서각, K2-2425).
『宮園儀』(장서각, K2-2428).
『三禮圖』(규장각, 奎5666).
『紹熙州縣釋奠儀圖』.
『詩經』.
『承政院日記』.
『呂氏春秋』.
『禮記』.
『毓祥宮昭寧園式例』(장서각, K2-2477).
『儀禮』.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宗廟儀軌』(규장각, 奎14222).
『宗廟膳錄』(장서각, K2-2171).
『周禮』.
陳祥道, 『禮書』 宋.
『春官通考』.
『太常志』(장서각, K2-2043).
『皇壇儀軌』(규장각, 奎14309).
『皇壇增修儀』(규장각, 奎14314).

2. 논저

- 강제훈·정종수·이현진·박정혜·한형주·김상보·이민주·송혜진·남호현, 『종묘, 조선의 정신을 담다: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으로 본 종묘제례』,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14.

- 곽현우, 「朝鮮時代 王室의 金屬祭器와 祭器圖說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곽희원, 「조선후기 궁원제와 명문기명」, 『미술사학』 32, 2016.
- 구혜인, 「조선후기 簠簋不飾의 함의와 祭器의 도철·거북문과의 관계」, 『한국학』 144, 2016.
- 구혜인, 「조선후기 왕실 제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구혜인, 「조선후기 종묘 신실 공간의 구성방식과 성격」, 『한국학』 163, 2021.
- 구혜인, 「조선후기 국장용 제기의 조성과정과 성격: 정조 국장 관련 의궤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42, 2022.
- 구혜인, 「조선후기 국가 의례용 술잔의 表象: 爵」, 202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정기학술대회 발표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3
- 국립고궁박물관(편), 『종묘』,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14.
- 궁중유물전시관(편), 『宗廟大祭文物』, 서울: 궁중유물전시관, 2004.
- 김정열, 「산 자를 위한 죽은 이의 그릇: 중국 商周시대 청동 예기의 성격과 그 변화」, 『미술사학』 27, 2013.
- 김종임, 「朝鮮王室 金屬祭器 研究: 宗廟祭器를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종임, 「조선왕실 금속제기 연구: 종묘제기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77, 2013.
- 문화재관리국(편), 『宗廟祭器』, 서울: 문화재관리국, 1976.
- 문화재청 종묘관리소(편), 『종묘』, 서울: 문화재청 종묘관리소, 2006.
- 박봉주, 「조선후기 국가 祭禮와 尊·罍의 사용」, 『조선시대사학보』 58, 2011.
- 박봉주, 「조선후기 국가 祭禮와 簠·豆의 사용」, 『동방학지』 159, 2012.
- 박수정, 「조선초기 儀禮 제정과 犧尊·象尊의 역사적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0, 2012.
- 박정혜, 「종묘 제례를 그리고 기록해 후일의 지침으로 삼다」, 강제훈 외, 『종묘, 조선의 정신』을 답다: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으로 본 종묘제례,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14.
- 손명희, 「종묘 제향을 위한 그릇과 도구」, 국립고궁박물관(편), 『종묘』,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14.
- 손명희, 「조선의 국가 제사를 위한 그릇과 도구」, 『조선의 국가의례, 오례』,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15.
- 윤방언, 『朝鮮王朝 宗廟와 祭禮』, 대전: 문화재청, 2002.
- 이귀영, 「宗廟祭禮의 祭器와 祭需의 진설원리」, 『미술사학』 27, 2013.

- 이범직·최순권, 『정조대 종묘소 관리들의 종묘제향 학습서: 역주 매사문』, 서울: 민속원, 2017.
- 이옥, 「조선후기 왕실 제사와 제물의 상징: 혈식·소식·상식의 이념」, 『종교문화비평』 20, 2011.
- 이옥, 「조선후기 종묘 증축과 제향의 변화」, 『조선후기시대사학보』 61, 2012.
- 이옥, 『조선 왕실의 제향 공간: 정제와 속제의 변용』,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 이옥, 「부묘를 통해 본 종묘 이해」, 『종교문화비평』 45, 2024.
-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 서울: 일지사, 2008.
- 장경희, 「朝鮮後期 宮園制의 성립과 변천」, 『서울학연구』 23, 2004.
- 장경희, 「조선후기 王室祭器 鑄成 鑪器匠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9, 2006.
- 장경희, 「조선후기 종묘제기와 청대 태묘제기의 비교」, 『천년의 이야기』, 서울: 문화재청 종묘관리소, 2010.
- 장경희, 『조선 왕실의 궁릉 의물』, 서울: 민속원, 2013.
- 조미경, 「朝鮮朝時代의 祭器에 關한 研究: 宗廟祭器를 中心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최순권, 「조선후기 이준에 대한 고찰」, 『생활문화연구』 14, 2004a.
- 최순권, 「宗廟祭器考」, 『宗廟大祭文物』, 서울: 궁중유물전시관, 2004b.
- 하은미, 「宗廟祭器와 朝鮮時代 祭器圖說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하은미, 「장서각 소장〈陳設圖〉와 조선후기 왕실 제례 정비」, 『미술사학』 30, 2015.
- 한국고전번역원(편), 『종묘의궤 1·2』, 서울: 김영사, 2009.
- 한형주, 「許稠와 태종~세종대 國家儀禮의 정비」, 『민족문화연구』 44, 2006.
- 황경환, 『朝鮮王朝의 祭祀』, 서울: 문화재관리국, 1967.

국문초록

이 연구는 종묘 오향대제에 사용된 제기를 대상으로 그 안에 내재된 속성들의 ‘상호관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종묘 오향대제에 진설되는 다양한 제기들은 국가전례사에서 정한 바대로 각각의 용도가 있고, 제기별로 재질, 형태, 크기, 문양을 갖춰 제작되었다. 제기들이 내포한 각 요소들은 서로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제상과 준소상 위에 조화롭게 진설되었다. 조선시대 국가제사 중 가장 많은 수의 제물과 제기가 진설되는 제향인 종묘 오향대제에서 제기의 진설 방식은 제물의 풍성함을 가시화하는 동시에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종묘 오향대제용 제기는 초기에 중국 예서에 바탕을 두고 제작되기는 했으나, 조선의 기준에 적합한 종류를 엄선했다. 종묘제기로 구성되고 조선의 조형적 미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조선의 외교적 상황을 고려해 적합한 진설 규모와 방식을 고안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종묘제기의 특성을 읽을 수 있다.

투고일 2023. 12. 21.

심사일 2024. 2. 15.

게재 확정일 2024. 2. 14.

주제어(keywords) 종묘(Jongmyo), 오향대제(royal ancestral rite, Jongmyo Daeje), 제기(auspicious ritual vessels), 제상(sacrificial offering table for ancestor), 준소상(drinking table for ancestor), 신주(ancestral tablets)

Abstract

Interrelationships and Characteristics of Ritual Vessels for the Five-Hyang Daeje at Jongmyo Shrine during the Joseon Dynasty: Focusing on the Ritual Vessels Placed on the Sacrificial Table and Drinking Table in Jeongjeon

Koo, Hyein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relationship” of the properties inherent in the ceremonial rites used in the Five-Hyang Daeje of Jongmyo Shrine. The various ritual vessels presented each have their own purpose as defined in the National Liturgical Book, and each vessel was produced with the right material, shape, size, and pattern. Each element included in the ancestral rites was placed on the ancestral rite table and semi-small table while forming a mutual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At the shrine, the ancestral rite where the largest number of offerings and ancestral rites were presented among the national ancestral rites of the Joseon Dynasty, the method of presentation of ancestral rites was designed to visualize the abundance of the offerings and at the same time create the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Although the Jongmyo Shrine ware for the five-hyang ancestral rites was initially produced based on Chinese rites, it was constructed by carefully selecting types suitable to Joseon’s standards. Moreover, it was produced in a way that matched the formative aesthetics of Joseon and designed to reflect the diplomatic situation of Joseon. The uniqueness and uniqueness of Jongmyo rites during the Joseon Dynasty can be seen in the fact that an appropriate scale and method of presentation were devised.